

聖教切要

성교절요
聖教切要

Syeng. Kyo. tchyel. yo.

*Exposé de la religion
catholique, en coréen.*

1 vol. gr. in-12, 86 f. 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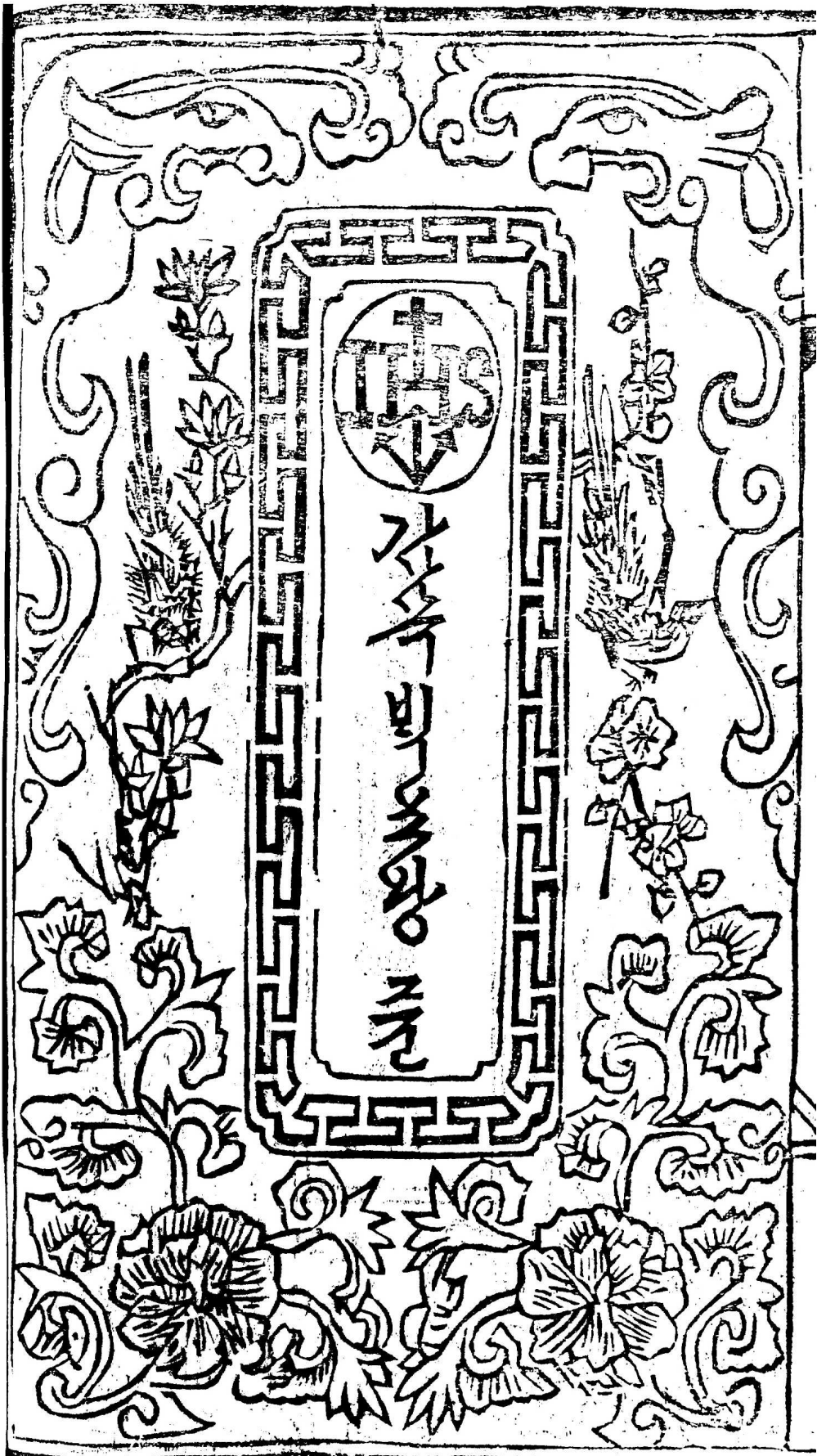
Mis. Cath. Seuil.

葛

EX LIBRIS COLLIN DE PLANCY.

COR. I-507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성고절요

성스지적

인스흐신련주 | 성스의례를세워명흐심은사름으
로호여곰조차행흐야련주를밋고브라고스랑흐는
삼덕의지극흐디니름을편케흐샤가히시러곰형상
잇는례로써련주를이경흐는공을행흐야안므음에
련주를이경흐는정을표흐야내게흐심이라련주를
이경흐는례두가지잇시니흐나흔곳형상업는안례
니이논안므음에련주를밋고브라고스랑흐는세가
지덕을써일우고흐나흔곳형상잇는밧것례니이논

성스지적

성스의례로써 항함이 라련주의은혜는 홀노 사람의
령혼만 받는 거시 아니 오 곳 사람의 육신에 받는 바은
혜도 또 홀이 괴여 혜지 못 할 지니 그런고로 령혼만 형
상업는례로써 맛당이 련주의 경함을 뿐 아니라 아 오
로 육신도 형상잇는례를 준 항함으로써 맛당이 련주
를이 경함을 거시 니 련주의 경함는례 비록만 호나 다
만 성스의례를 홀노 중함고로 ㄹ 장정성되이 련주를 공
경함는자 一 곳 성스의례를 잘 쓸지라 그러나 봉교자
一 임의 공경함는 받자 一 오직 함나 헌즉 그 공경함야
함등는례도 받드시 맛당이 함나 히 오가 히 들히 되지

못 할 거시며 임의 봉교자 | 서로 혼뜻에 합하고 외교
자와 서로 분별하야 혼뜻에 합지아닌 즉 반드시 믿음
을 표하는 혼밭 것례 잇서 그 서로 갓고 외교자와 서로
분별하는 보름이 될 거시라 이 거시 다 성스의례에 온
전이 그 작시 니련 주의 명함 심이 또 혼이 뜻이니라
성스는 이 오주 예수 의 명함 신바 형상 잇는 밧 것 보름이
니 써 그 밧는 자 의 명함 혼에 형상 업는 성총범을 표함이니
라

이 는 모든 성스의 공번된 호함을 닐음이 라 므르 성스
는 임의 성총을 내고 사람의 죄를 사하는 능이 잇스니

반드시 능히 죄에 무드지 못하느니라 오온전헌능과
온전헌선이잇는자야 밤야흐로 스스로 능히 세워
뎡홀지라 사름은 지극히 미하고 지극히 약하야 능히
죄의 더러움에 무드느니 엇지 능히 세우리오 홀노우
리 주 예수는 온전이 능하고 온전이 선하야 능히 죄
에 무드지 못하느니라 그런고로 스스로 능히 성
스를 뎡하야 세우시니라 후이 무르디 데왕도 또 헌뎡
뎡이 사름의 죄를 사하느니 엇짐이 노곤으디 데왕은 불
과 능히 법률의 뎡헌바 밧겨 형벌을 사하디 사름의 령
혼에 그윽헌악은 그 사함이 밧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4
밧것형벌은 면하되 디옥에 너림은 면치 못하느니라
만코 함몰며 데왕의 밧것형벌을 사함는 권도 스스로
둔바 이 아니라 이런 주로 말미암아 둔바 이 이러므로
로 데왕의 게면흔 죄인을 런 주 이 후 사치 아니 시는 고
로 데왕의 벌은 밧지 아냐 도 런 주 이 그 죄 벌 노느 리우
시는 세 상고로 음을 밧는 자 이 또 흔 만흐니라

○
므릇닐은 바성스 이 성총을 내다 흠은 능히 스스로
이 아니라 불과 성총내는 귀계 되니 곳 런 주의 쓰셔 성
총을 내 시는 바 이 라 대략 공장이 귀계로 루디를 문듬
과 곳 하 니 엇지 귀계가 스스로 능히 문 들 니 오 그러나

성스 | 비록 본디 밧는 자의 령혼에 성총을 내나 번번
이 념이 아니라 불과 밧는 자의 선악을 보아 후내고 후
내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만일 천주의 덩하신 바 규구
를 조차 밧은즉 그 령혼에 성총념을 엇고 사람이 후규
구를 거스리고 밧으면 다만 성총내는 효험을 저 버릴
뿐 아니라 또 혼가지 큰 죄를 더으느니 비컨디 또 혼약
이 본디 능히 병을 치료하나 번번이 치료하는 거시 아
니라 사람의 조품을 조차 후치료하고 후치료치 못하
고 또 병을 더음 곳하느니라 날은 바 성총은 이런 주 | 사
람의 계형상업은 신은 을 티와 써 성인을 일우게 하시

는 거시니 성인은 세상에 서련 주의 의 조니 되고 죽은
후에 려니 유대부와 호가 지로 려니 당의 영복을 기리 누리
느니라

○ 우리 사람이 세상에 잇서 능히 형상업는 신물을 통달
치 못하니 반드시 형상잇는 거슬의 락하여야 비야 호
로 가히 약간 북힐지라 그런고로 오주니 성스를 멸하
야 세우실시 형상잇는 물건을 쓰샤 사람이로 하여곰
성스의 내는바 형상업는 성총을 저듯게 하시니라 그
러나 형상잇는 물건은 씬이 아모 물건이나 쓰는 거시
아니라 불과 능히 성총과 락락히 서로 응하고 서로 맛

뜻은물건을써야범야흐로가히성스의내논바성총
을표하야내리니비컨디성세를명하야세우시매다
만물은물을쓰은물이본디능히육신의더러움을씻
숨을인힘이라그러므로성세의례를행할시물노니
마를씻서써안호로령혼죄의더러움을성총으로씻
숨을표하노니라

○성총은모든성스의공번된효험이오그외에령세와
견진과신평세가지는다로신인을사름의게붓치는
효험이잇스니신인은련주령혼에티우시는바보
름이니써다른성스를받고후배프는능을주어하어

곰그 밧지아닌 자와 서로 분별함게 흠이라 성세의 밧
치는 바신인은 령세 함는 자의게 다른 성스 밧을 능을
주어 함여곰의 교자와 서로 분별케 함야 집안과 접밧
기서로 분별함곳고 견진의 밧치는 바신인은 견진 밧
는 자의게 신 품 령함능을 주고 또 함예수의 군스 | 되
게 함야 함여곰그 밧지 못함자와 분별케 함야 어린자
와 장성함자 | 서로 분별함곳고 신 품의 밧치는 바신
인은 신 품 밧는 자의게 다른 성스 룰 함고 다른 사람
의게 배플능을 주고 또 함함여곰그 모든 교우와 서로
분별케 함야 돕함이와 느즌이 서로 분별함곳함니므

뜻신인은영원이멸치아니하야하상잇는고로이세
가지성스는다만흔번만능히밧을거시오가히다시
밧지못하느니라

○ 오주의덩하선바성스 | 날곰이잇스나성세와견진
과성태와고히와종부와신평과혼비라이날곰가지
온전이그촌후에성교회능히셔고보존할지라세계
에비하건대반드시날곰가지를온전이그초아야
야흐로성취함을엇으리니곳이사람이세상에남이
하나히오즈라장성함이들히오양육함이세히오그
병을다스림이네히오그병후에연약함을보함이다

솟시오 그 육신을 제어 하는 권이여 솟시오 인류를 전
 흠이닐 곱이 라이닐 곱가지다 그 장요긴 함야 온전이
 그 초아야 족히이 세계를 보존 하는 고로 가히 감함도
 못 할 거시오 또 훈반드시 함나 할 더 할 거시 업는지라
 성교회에 그 장요긴 훈바일도 다닐 곱성사로써 온전
 이 그 잣시니 대개 성세로 사람의 령 혼을 띤 주께 나게
 함고 견진으로 그 신력을 견고케 함고 성례로 그 신명
 을 령신의
성명 기르고 고히로 죄의 병을 다스리고 종부로
 죄 후에 연약 함을 보 함고 신 품으로 그 령 혼을 제어 함
 는 권을 잇고 혼비로 봉교인의 수를 더으니닐 곱가지

중 에 후 나 히 라 도 이 즈 러 지 면 족 지 못 후 고 닐 곱 가 지
에 후 나 흘 더 후 려 후 여 도 또 후 맛 당 치 아 니 후 니 라

성세경서

성세세가 지잇스니 흥나 흥물노 씻삼이 오 들 흥 피로
씻삼이 오 세 흥 불노 씻삼이라 불노 씻는 세는 이 날은
바성사의 웃듬이라 그 말을 이 아래 처해 하 흥 엇 보되
로 씻삼은 곳이 오 주를 위 흥야 치 명 흥이 오 불노 씻삼
은 열심으로 련 주를 만물 우회 사랑 흥며 열심으로 조
괴 죄를 만가지고 로 음에서 더 흥 흥이니 새 가지 예어
나 세를 의론치 말고 다 능히 사람의 령 흥을 구 흥는 고
로 므로 주를 위 흥야 치 명 흥는 자나 후 련 주를 조 창
근 절이 사랑 흥는 믿음을 받 흥는 자는 비록 물노 씻는

세를 밧지 못하여 도다 만령세 흠 뜻이 잇스면 다 죄를
샤 흠과 성종의 은혜를 넘어 능히 현당에 올라 무궁한
복을 누리느니라

성세는 이에 오주 예수 의명하신바 레라 써령세 하는 자
의령혼의 죄 더러움을 씻고 원죄와 본죄의 악과 및 두가
지 죄의 서로 응하는 바 벌을 온전이 사하여령세 하는 자
로 하여곰령혼의 초성혼 성명을 잇어 세상에 서는 성교
회와 흠이 되고 스후에는 천국에 만가지 복을 잇게 할
심이니라

이느 성세의 효험이라닐은 바 본죄는 이 각 사람의 스

스 로 범 후 바 죄 오 날 은 바 원 죄 는 곳 어 원 조 의 문 사 름
의 게 깃 쳐 누 려 온 바 죄 무 등 이 니 대 개 원 조 의 범 후 바
죄 에 그 후 디 만 국 조 손 이 무 드 지 아 년 의 업 누 니 어
만 민 의 무 든 바 원 죄 원 조 의 게 서 남 은 더 려 온 물 어 죄
러 온 심 에 서 나 고 쓴 설 과 이 쓴 별 회 에 서 남 과 조 등 너
라 오 직 오 주 와 성 모 는 조 출 후 심 이 지 극 후 사 비 루 원
조 의 후 디 가 되 시 나 원 죄 의 무 든 바 이 되 지 아 나 덧 덧
이 조 출 후 야 죄 의 더 려 음 이 업 스 시 너 라
날 은 바 성 명 이 두 가 지 잇 스 니 후 나 혼 이 육 신 의 본 성
을 의 지 후 는 성 명 이 오 후 나 혼 이 령 혼 의 본 성 에 띄 여

나 혼성명이 라령혼은육신의본성성명이 되고성총
은령혼의 초성성명이 되니 대개성총이 능히령혼으
로선을행하고공을세워현당의길을행하게함이다
치령혼이 능히육신으로운동하고든니게하는것과
못하니라

○ 오주 예수 | 성세를 세워 성사의 으뜸을 삼으실지라
대개 2 장 요긴 혼성사 | 성세 못 혼 거시 업 누니 원 조
| 류의 명을 비역 혼 후에 인류 | 다 원 죄 를 무 드려
현 류의 성 총 이 온 전 이 업 서 그 령 혼 이 죽 은 것 과 못
니 성 세 로 성 총 을 님 어 다 시 살 아 나 지 못 할 현 영 영

런국에 드지 못할지라 오주예수 | 장춧승런ㅎ실때
에종도드려닐너꼴ㅇ샤덕너희무리보런하에는화
힝ㅎ여만민을꺾꺾치고성세를붓치덕 **부의자와**

성신의일흠을인ㅎ야ㅎ라사름이맛고검ㅎ야령세
ㅎ는쟈는반드시런당에오를거시오맛지아닛는쟈
는반드시디옥에너리리라ㅎ시니그후종도와모든
락덕아다주의명을밧드러부세ㅎ는례를힝ㅎ니라
그러나비록세를붓침으로써사름의죄를샤ㅎ디다
만샤죄ㅎ는은혜는이종도와락덕의능이아니라오
주예수의능에속ㅎ니락덕은불과괴계꺾ㅎ야런쥬

— 쓰셔 성세의례를 일위 사름의 죄를 사하시느니라
— 그리고 성세의례를 선흔자 — 행하나 악흔자 — 행하
나 다 혼갈곳흔지라 성인안스딩이 곧으샤 디부세
흔자는 선악을 거리끼지 아니하니 후총성된종도
베드루곳흔이나 후패역흔종도 유다스곳흔이라
도 피츠부세흔기느다름이 업서령세흔자는 죄사함
과 모든은혜를 넘음이 다다름이 업다하시니 비컨대
대신이 남금의명을 받드러샤를 반포할제사흔은
혜본디 남금의게 낫시니 대신이 후선하나 후악하
나 샤를 반포함은 다 혼갈곳흔니라

㉞ 부세는 이락덕의 본직이니 응당 본당락덕이 시행할
 거시로 디만일 어린으히나 후어룬사름이 목숨을 일
 흘 위험을 맛나면 남녀를 구애치 말고 다 능히 권세 할
 지라 그러나 사나히 잇스면 녀인이 가히 세를 못 할 거
 시 오만 일 사나히 편치 아니 커나 후세 흥논 규구를 아
 지 못 흥면 녀인 도 세 함이 또 흥 가 흥 고 부모가 조식을
 세 흥 지 못 할 거시로 디만일 사름이 업논 디 조식이 죽
 게 되면 마지 못 흥 야 또 흥 가히 세 할 거시 오외 교자 도
 성 교회례를 의지 흥 야 흥 흥 면 또 흥 능히 세 흥 논 니라
 ㉟ 으룻 위험을 맛나 령세를 원 흥 논 사름이 잇거 든 몬져

맛당이 성교의 요긴함도 리를 극히 부리고 굿이 밋
고 통회 영의 현연 후에 물은 물 노니 마를 씻으며 소리
를 내여 연주의 영함 신바 경을 이 아래 극치 외 오디

아모

성인의 일함
나 홀부극고

내가 너를 씻기 터 성부의 영조와 영신
의 일함은 인함 야 함 노라 함라

손으로 씻는 것과 입으로 외오는 거시 서로 극치 응함
게 함 고 가히 선 후 | 잇지 못 할 거시 오아 오로 가히 함
즈히라도 더으거나 감함 지 못 할 거시 오만 일세 함

규구에 합지 못흔 거시 잇서 세 흥는례를 그릇 흥였는
가의 심이 잇거든 반 드시 새 로 다 시 세 흥저 니 곳 곧
되 만 일 너 | 세 를 밧지 못 흥였 시 면 내 가 너 를 셋 기 더
성부와 처자와 경신의 일 흥을 인 흥 야 흥 노 라 흥 라

후 명 오 | 열 니 지 못 흥히 동 들 이 흥 흥 병 이 든 자 | 잇
거 든 교 흥 으 히 아 니 라 도 그 부 모 의 성 교 를 밧 음 과 아
니 밧 음 을 못 지 말 고 더 세 를 흥 여 줌 이 가 흥 니 라

○ 부 세 흥는례 두 가 지 잇 스 니 흥 나 흥 붓 치 는 바 물 과 념
흥는 바 경 문 이 니 이 는 오 주 의 친 히 덩 흥 신 거 시 라 만
만 코 털 꼭 만 치 도 곳 치 지 못 흥 거 시 니 므 룯 급 박 흥 때

를 맛나면 아모사름이라도 능히 흥흥 거시오 들흔 부
세 흥논례절이나이는 종도와 교화황이 덩흔 거시니
홀노본신부 | 능히 흥흥 논니라 그례절이다 김고묘
흔 뜻이잇스니 이제 대략 풀어령세 흥논자로 생각 흥
야고 신익을엇게 흥논라

일림디부

일은 딴부
를
세움이라

므릇비호고닉이 고저 흥논자논반드시마르치고
음의 흐린 거슬뵈히고 인도 흥야도에 나가게 흥논
스승을마른 연후에 야가히 비호고닉이논자 | 라 흥
거시니 장춧령세코저 흥논자 | 비로소 성교스리를

비호는고로반드시교중에흔덕망잇는자를청하야
디부를삼으니겨느려교에들게하고일후에그르치
고권면하야인도하고종신도록맛하션을면려하고
악을경계함이다디부와디모의소임이니라디부디
모되는자그디즈디녀와아오로디즈디녀의부모
와더브러다혼인을못하느니성교회규구에금흔바
이니라

이침당전

이느성당암
회삼이라

장춧령세하려하느자이제까지현주를모로고망
병되이사신의게절하고망병되이길흉을밋고사망

의 일을 행하여 가지가지로 주와 상반하고로 가히
 려니 주의 사림이라 날으지 못할 거시니 즉 금당 밧괴셔
 셔 오히려나 아 들고져 하디 감히 드지 못함은 주와 상
 반하던 죄악을 생각함이 라 락덕이 경을 외와 려니 주께
 죄를 사하고 마귀를 쫓츠삼을 괴구헌 연 후에야 보야
 호로 감히 당에 드러가고 또 령세는 려 당에 드는 문이
 되니 장춧 령세 함이 장춧 려 당에 드는 것갓 호고로 당
 밧괴셔 기는 일 후에 능히 려 국 문에 들기를 표함이 니
 라

삼경

삼은 성인의 일
함을 명함이 라

사름이 처음으로 세상에 난즉 그 부모 | 혼일 흠을 지
 어 후에 부르느니 령세 하는 자 | 처음으로 련쥬겨나
 비로 소령혼의 성명을 잇는고로 성인의 일흠을 곧히
 여씨 일흠함이 오또 성명을 덩흠은 령세 자로 맛당이
 본명성인의 대덕을 보아 종신도록 힘을 다 하여 본받
 음을 빚이 오또 성인이 련쥬되전에 잇서 제쥬보 | 되
 여련쥬겨전 구하여 보우하샤 일성에 령혼과 육신의
 평안 흠을 주시게 하기를 바라게 흠이 나라

스허기키마

스는 괴운을 부러
 마키를 조츠미라

오쥬예수 | 세상에 제실제종도를 향하여 괴운을 부

러 큰으샤 더너희 무리 성신을 밧으라 하시니라
오쥬를 법밧아 곳령세자를 향하야 부러련쥬끼샤마
를 구족하시고 그 마음속을 조출이 하샤 성신이 강림
하야 계실 곳이 되게 하심을 구하느니라

오인성호

오인성호를
그음이라

십조성가는 오쥬의 슈난하신 그릇시 오샤마를 향복
밧는 권이잇스니 마귀장무셔 위하느거시 곳이 성
호이라 그런고로 락덕이 십조성호로 령세자의게 그
어샤마를 쪼차다시 해하지 못하게 흠이 오또데왕의
인으로 봉훈물건을 신민이 감히치지하고 훼손치 못

호느니이제성호를령세자의게그은즉련주의인마
즌물건이라마귀곶련주의사름인줄을알고감히갓
가이나아와침범호고해치못호느니라

륙부령익

륙은니마를
덥홈이라

종도 | 세상에계실때에병든자를더신호야오쥬찌
귀구호고손으로써덥호신즉병이나으니략덕이종
도를비화곶손으로써령세자의니마를덥고련쥬찌
그령신의병을치료호시고그령신의호린거슬저오
치시고신광을주샤호여곰능히선악을분별호고가
히련당길흔알고행호게호심을구호느니라

칠경성염

칠은 열염을
맛음이라

소곰이 두가지 효험이잇스니 하나 혼물건으로 하여
 곰마시잇서 승겁지아니케 함이 오들 혼물건으로 하여
 여곰장구히 상치아니케 함이니 인정이 음식에 마시
 잇스즉 즐기고 마시업스즉 슬회여 하며 물정에 도소
 곰이 잇스즉 보존하고 소곰이 업스즉 썩어 내암새 더
 러워맛기어려오니 뇌 감히 거두어 버리지아니 하리
 오이 제탁덕이 성염으로 령세자를 주어 맛뵈이며
 띠엔 주피 빌어 성교도 덕의 마슬 주사 하여 곰흉구히도
 를 흥하고 덕을 닦가슬 코힘의 흥야 변기치아니케 하

시고 또 죽은 후에 련쥬 | 그 령혼을 슬히여 아니시고
도로 혀 상성을 주샤 영원이 그 성용을 누리 보옵게 하
시기를 구하느니 이러 듯 하면 엇지 더욱 장구 하며
련쥬의 3 장즐기시는 바자 | 되지 아니리오

팔봉락덕성덕입당

팔봉은 락덕의 령덕을 받들
고 당으로 들어감이라

령세자의 령혼이 마치 갓난 어린 ㅎ히와 갓흔지라 어
린 ㅎ히 거름을 비홀 제 스스로 능히 발을 들어 평안이
행치 못하야 반드시 부모의 옷슬 붓들고 점점느 죽이
행하야 능히 중도에 너머지 아니스니 이제 령세
자 | 락덕의 령덕을 받들기스스로는 련항길에

가 기 어 려 워 반 드 시 탁 덕 의 교 훈 을 가 진 연 후 에 야 가
 흠 을 뵈 미 라 대 개 처 음 으 로 령 세 흥 는 자 | 처 음 으 로
 련 주 께 나 셔 령 훈 의 신 력 이 능 히 건 장 처 못 흥 며 흥 들
 며 세 상 길 이 위 험 이 만 코 샹 마 의 께 음 이 심 히 흥 흥 고
 심 히 만 흥 니 만 일 즈 께 를 밋 어 련 당 길 가 기 를 원 흥 면
 디 옥 길 회 너 머 지 지 아 니 라 반 드 시 탁 덕 의 마 르 치 고
 인 도 흠 을 드 러 조 차 털 께 만 치 도 방 종 치 아 니 흥 여 야
 비 야 호 로 만 복 의 곳 에 니 르 리 라

구
뎌
이
비
이
스

구는 귀와코
 뎌는 짐이라

오 주 예 수 | 세 상 에 계 실 제 손 으 로 현 귀 막 히 고 병 어

리된자의 귀와 혀를든지 시매 그 병이나 능히 말하
 고 능히 드르니 닥덕이 오주예 수를 법 밧아 령세자의
 귀와 코를든지며 연쥬꺼 빌어 그 안과 밧기 귀와 코를
 열어 능히 맛당이 뷔힐바 김흔도 리를 뷔히고 능히 맛
 당이 흥홀바 일을 흥흠을 주샤 가히 죄악의 내를 슬회
 여 호고 선덕의 향을 도화 호야 밑위여 모든 사람의 게
 밧게 호심을 구호느니라

십부성유

십은 성유를
붓침이라

이 기름은 서국오리와 나무 열매 즙이라 도흔약이 되
 여 능히 창병을 치료 호고 또 능히 사람의 귀력을 더으

누니 이제 이 뜻을 빌어 성유 | 령 혼의 신약이 됨을 표
 함이니 락 덕이 성유로써 령세자의 가슴과 등에 십조
 를 그으며 령주 꺾 빌어 그 령신의 병을 꺾치고 사육을
 끈코고 신력을 더으샤 하여곰그 능히 정도와 덕행을
 굿이직히 여비록 환난을 맛날지라도 감히 뜻을 변치
 아니케 하심을 구하고 또 혼세상의 잠고를 인하여
 령주 | 영복으로 감해주심을 바라누니라 이러므로
 홍상오주의 말씀에 나와 혼가지로 십조가 틀지 지아
 닛는 이 눈내 데스 | 아니라 하심을 생각할 거시니라

삼일부성슈

삼일부성슈
를 붙잡으라

물이 본디 육신의 더러움을 씻스니 이제 이 뜻을 밧어
써 오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의 죄 더러움을 씻서 내리
심을 표함이 라 연고로 탁독이런 주의 명을 밧드려 성
슈를 써 령세 자의 니 마를 씻스며 려 주께 성품을 주사
원죄와 본죄를 온전이사 하야 하여 곱련 주께 나게 하
심을 구하느니라

십이지부성유

십이부성유를
두번 못침어라

성유는 이즈비의 표이라 이제 성유를 더으기는 령세
자본디 털끗만 혼공로 업스디 다항이런 주의 온
이 하심을 밧어 빠샤 교에 나아 오게 하샤 그 죄를 온전

이샤 후시고련주의의즈를삼으심을표함이니므로
련주의즈비후신은혜를받는자는또후스스로즈비
후모음을발후야다른사람의게밋게함이당연후의
리니라

삼삼개명의

삼삼은흰옷
로덥힘이라

흰옷손본디조출후야무들미업고더러움이업는거
시니만일후번무들면그본다히던빛출다시엇가어
려온지라그러므로이제흰옷스로써령세자의머리
에덥힘은그령혼이조출힘이흰옷곳후야죄의무들
미업고악의더러움이업숨을표함이오아오로그조

출함을반드시영원이보존하려흔즉전심갈력하야
주의명을준슈하야종신토록다름이업게할거시니
만일다시주의명을비반하고최악에무들면본디조
출함을회복하가어려움을빚이니라

십 소 제 정 축

십 소는 정 축
을 잡 음 이 라

밀 초 | 빗치 잇고 꽃꽃함이잇고뜨거음이잇스니 빗
춘신덕에비하고꽃꽃함은망덕에비하고뜨거음은
이덕에비함이라이제탁덕이밀 초를 가져령세자를
주어손으로밧들게하니그다만이삼덕을온전이라
초아 믿음안희뎃뎃이삼덕의정을발할뿐아니라아

일본의

뜻이라본

곳이 감심으로 령세 흥기 룰원 흠이니 만일 령세 룰일
 녕원 처아 낫는 자ㅣ 잇서 다만 후다 른 사름의 강박 흥
 을 인 흥 거나 후 그 악 흥 무음을 내여 침 쫓 무음으로 논
 거스리고 입으로 만 순히 흥야 령세 흥면 어런이 논 비
 록 밧그로 령세 흥나 진짓 령세 못 흥자ㅣ 오 불과 거 쫓
 령세 흥자ㅣ 라이런이 논 런 쥬 꺾 득 죄 흥 뿐 아니라 천
 과 낫치외 교인이 오 교 중인이 되지 못 흥 논니 만일 후
 에 무음을 곳 처 령세 흥기 룰원 흥면 반 드시 새 로 일 즉
 령세 아닌이 와 낫치 령세 흥지 니라

이
션
지

이
는
천
하
의
지
향
이
라

오쥬 | 성세의례를세우심은불과세상사람으로
런쥬를공경하야그령혼을구하게하기를위하심이
오사람이세복등정엇음을위하심이아니니므르령
세하고저하는자는반드시이당하신지향을의지하
야홀노쥬를섬기고령혼을도라봄을위하야령세홀
거시오만만코세간의빈부와고락과성스를위하야
령세하지못할지라만일세복을람하야령세하면크
게성세의본뜻을어긋여런쥬까지죄를엇는지라런쥬
의당하신바성세의례를나 | 모령하야런쥬까지죄를

엇으면엇지가히성세로련쥬ㅣ복노리우심을바라
고엇지가히화롤노리우심을무셔워호지아니호라

삼학습

삼은빈화
낙임어라

곳이성교의경문을비화닉이고힘써그안희스리를
대략북한연후에가히령세호기를구홀거시니오쥬
ㅣ종도드려닐너콜으샤더너희무리가셔만민을
르치고성슈로써붓치라호시니가히알지라련쥬ㅣ
명호시기를르침으로써몬져호고부세로써후에
동게호시니만만코가히것구로호야르침으로써
후에호고부세로써몬져호지못홀지라성에오련ㅣ

오쥬의말씀을풀어코려샤디션하시도다이말씀이
여사름이아지못하는거슬능히사랑하지못하고몬
져그중대흔줄을안연후에야사랑하니하믈며성
교의김흔의리를아지못하며엇지가히슈고를당하
고고로움을참고삼구를쳐이김을사랑하야써준행
하리오하시니라성교의중요로운경의론컨대곳
십이단경문과요리문답이니하은이와어란이를의
론치말고능히비홀만하이는반드시맛당이니여대
략그뜻을비힐거시오만일흐려능히비호지못하는
자논비록온전이니아지못할지라도또하가히령세

흔 거시오 만일 흥명 흥거나 게어려지 아니 흥자 노도
흔 일노 썩 한명을 삼지 말 거시니 더욱 너이 고 너일스
록 더욱 높고 스 못차 더욱 그 신익을 얻으리라

스 습 선

스는 천을
너임이라

곳이 거룩 흥 공부로 령세 흥기를 예비 흥인 즉 령세 흥
기전에 맛당이 성교의 공업을 너이 흥 흥 거시니 령쥬
피경비 흥과 심계를 직 힘과 념경기도 흥는 그런 신공
이며 아오로 사교와 이단의 풍속과 갖가지 죄 범 흥근
원을 끈 허 버리고 념의 게진 빛과 념의 직물을 해 흥바
와 념의 명성을 쾌 흥 거슬기워 갑고 밋 전에서 로 흥 흥

던사름으로더브러화목하는그런류이니라

오신망의삼덕

오는맛고브라고스
랑은맛고브라고스

곳이런주의신묘하신정과그드리우신바말슴이지
극히거룩하고지극히참됨을성실이맞으며런주
금세에셔나를성총과령훈육신의모든은혜를주시
고스후에는런당영복주심을곳이브라며런주와다
못런주의사랑하시는런신과성인과사름을뜨거이
사랑할거시니함몰며이세가지덕이우리성교에
장요긴할자이라가히힘써이세가지덕의정을받으
지아니하라

루회기

루은넉웃켜
곳침이라

곳이 밋으음으로 오릿이 흥야 즈괴이 전범흔바 죄를원흔
흥며 밋으음을 명흥야 곳쳐 바로게 흥고 규구를 준 흥흥
야 몸이 밋도 록 변치 아니려 흥이 나라이 여섯가지
예비 흥연 후에 령세 흥면 크게 유익 흥리라

전진경서

전진은 오주예수의 영혼신바례니 써 사람의게 성총을
더으고 사람을 초성신덕에 견고히 하야 하여곰 성실이
련주를 밋게 하고 또 령혼의 신력을 견장케 하야 써 능히
릉옥환난을 두리 지 아니 하고 마귀의 계교를 놀나며 무
셔 위아니 하야 사람의 압회잇서 용밍혼막음으로 련주
| 만민의 진주 | 되심과 오직 련주성교 | 정도 | 되
는 줄을 증거 하 게 함 이 니 라

이 는 다 전진의 호침 이 라 므 르 처 음 으 로 령세 혼 자 |
그 령혼의 신력이 약 하 야 굿 지 못 혼 고 로 령혼의 삼 구

를 쳐 다향 흥기 어려오니 견진을 령 흥기 를 기 드려 신
력이 견장 흥즉 능히 강용 흥야 처이 길지 라 육신에 비
흥건덕 처음 날 때 에는 불과 흥연약 흥히 동이니 엇지
능히 악 흥원 슈 를 피 흥야 그 생명 을 보 존 흥리 오 몸이
장성 흥기 를 기 드려 괴력이 견고 흥연 후에 야 능히 도
적 과 원 슈 를 쳐 조 괴 를 모든 해 에 구 흥지 라 성인이 흥
상 곧 흥디 성신이 성세 로 사 름 의 게 성 흥을 열 으 시 고
견진 으 로 사 름 의 게 성 흥을 더 으 시며 성세 로 사 름 을
련 슈 께 나 게 흥 시 고 견진 으 로 사 름 을 원 슈 디 덕 흥기
에 강 용 케 흥 신 다 흥 니 라

㉠ 견진행하는 권을 오주 예수 종도의게 붙치 신고로
 흥상견진의례를행하여 잘령하는자로 하여곰다그
 믿음안희성신이 강림하심을넘게 하니 성경에 기록
 하여 곧 사디 예루살렘에 거한종도 사마리아사
 림이 성교를조음을듯고 베드루와 요왕을보내여 그
 따회한번나르매 곳그사름을더신하여 주피성신을
 받게 하심을구하니 이는전에 오직령세만엇은고로
 성신이일즉그 믿음에 강림치 못하심이라 이에 손으
 로어르문지니 다성신의 강림하심을넘엇다 하시니
 라닐은바손으로어르문침은손으로니 마를답함뿐

아나라손가락으로성유를부름을닐음이라종도
 주명을받드러견진행은권을그후모든위주교의
 계전후고로견진의례를행함이이주교의본직이니
 응당본주교이시행할거시니라이례를행할때에오
 리와기름과발사마향두가지श्यक슬쓰니곳주교
 이의년슈난전날에축성훈바이라성유로써령하는
 자의니마에십즈를그으며련주의명하신경을념하
 는나라견진의례절이다묘훈뜻이잇스니대략아래
 푸노라

일림터부

일은터부를
세움이라

므릇견진을령호고저호는자ㅣ잇거든반드시몬저
훈교중사름임의견진훈자를청호야그덕부를삼아
견진령훈을인도호게할지니이곳치훈은견진령호
는자를인도호야더욱검손훈을더어감심으로놈의
어진교훈을령종케훈이오산력이견고훈생각으로
신스의권훈을경홀이너지말고조귀의힘을밋어
헛되이삼구를쳐이감을브람으로조귀만죄를무릅
써영고함정에빠짐을닐외지말게훈이니라므릇견
진덕부덕모ㅣ그덕조덕녀와다못그덕조덕녀의부
모로더브러다가히훈인호지못호는니성교회규구

코션을 행하는 어려움은 사양치 아니하고 신 후에 잇
그러하늘에 올녀 상성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표하여 밝이 나라

삼용성유여발사마

삼은 성유와 발사마를 씀이라

이 기름은 본디 윤식하는 뜻이 잇는 고로 이제 이를 빌
어 써 성신이 견진령하는 자의 믿음에 그득하사 그령
혼을 윤탁게 하시고 혼근함과 용덕의 아름다움을 주
사이에 려 주의 믿음과 감동하사 그 장사랑하시게
함을 표함이 오발사마 향은 두가지 효험이 잇스니 일
은 물건으로 하여곰 덧덧이 보존하사 석음을 날외지

아니 케 응고 일은 아름답다 온 향귀를 발흥야 사름을 드
 리여 심히 즐겨 맛게 응논지라 그러므로 이제 뜻은
 빌어 견진령 응논자 | 반드시 흥심으로 선을 흥야 시
 종이 다르지 아니 응고 기리 진실 흥선의 묘 흥향귀를
 발흥야 타인의 게 밋쳐 깃븐 모습으로 맛게 흥을 표 흥
 이니라

스 이 성 유 희 십 조

스는 영유로 십
 조를 그 음이라

십 조 성 호는 이 우리 교 중의 보름이니 사름을 드 리여
 내가 교 중 사름인 줄을 알게 응고 그릇외 교 사름인 줄
 노야 지 말게 흥이라 이런 고로 이제 유교 | 성유로 십

조물니마에그음은견진을령하는자ㅣ응당이힘을
다하야성교ㅣ정도ㅣ되는줄을현양할거시오붓그
리고숨겨써사교로알게못할줄을표하야빚이라사
름이아모벼슬의보름이관조에잇손즉늑가늑이아
모벼슬흔줄을알아공경케하고저아니리오견진을
령흔자도이제로브더후는반드시사름사름으로하
여곰더ㅣ교중이되고그장귀중히늑이논바ㅣ오
직성교ㅣ줄을알게할지니일노써사름을인도하야
성교ㅣ춤됨을알게흔즉그혹스언행으로써정도
에
도라와런쥬를찬미할가힘이나라

오이슈박검

오손으로써
뺨을 때림이라

이논업수히덕이 고릉옥흙을닐음이니
므릇세상사
름이후손으로놈의뺨을 때림이다
릉옥흙
므음이잇
숨을인흙이라
이러므로
이제쥬교
견진령
하는자
의뺨을 때림은
이제브러
후는므
릇세상
사람의
릉옥
으로삼
는바
를다
므음을
덩
하는
야
련쥬의
거
룩
하는
신
일
흙을
현
양
하는
기
를
위
하는
야
침
아
밭
고
뜻
을
결
단
하는
야
출
하
리
만
고
와
만
옥
을
밭
을
지
언
덩
가
히
성
교
를
벗
고
리
고
숨
겨
련
쥬의
명
을
비
반
치
못
할
줄
을
표
하는
야
뵈
이
니
라

력 크게 현쥬찌 죄를 엇느니라 견진성스논가히여려
번령훈거시아니 오불과훈번령훈뿐이니 그붓친바
신인이 영원이 멀치아님을 인함이라 그런고로 임의
훈번령훈자논죄잇고죄업시령훈을 의론치말고만
만코가히다시령훈지못하느니라

성례성소

성례 두즈는 풀미 들히잇스니 흥나 혼곳이 오쥬예수
의 본신례 오흥나 혼곳이 성례성소이니 이는 오쥬의
신례를 포함함고로 날이 더 성례성소이라 흥나 그 말
을 대략이 아래 뵈노라

성례는 이 오쥬예수의 영흥신례니 써즈귀의 신례를 면
병형상안희곰초시고 다 못즈귀의 포도쥬형상안희
곰초샤면 병의례는 온전이 업서져 오쥬의 신례되고 포
도쥬의례는 온전이 업서져 오쥬의 성혈이 되게 흥나
니라

이 는 다 성례 성수를 날음이라 날은 바즈괴 신례는 헛
된 모양과 죽은 육신이 아니라 진젓이 오주의 넷때 세
상에 계시고 이제 천당에 계신 성활홍신육신이 오육
신과 령혼과 서로 결합홍지 아니면 반드시 능히 사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미양오주의 신례계신 즉 오주의
령혼도 혼가지로 계시고 오주의 령혼과 육신이 려쥬
데이위성즈와 서로 결합홍사기리 능히 서로 떠나지
못하시느니라 로마양오주의 육신과 령혼이 계신 즉
려쥬데이위성즈도 혼가지로 계시고 데이위성즈
데일위성부와 데삼위성신으로 더브러 다만 혼성과

혼례시라 만만코 능히 서로례와성을 논호지 못호는
 고로미양오주데이위성조계신즉데이위성부와
 데삼위성신도 혼가지로계시나곳이 혼례에오주
 의육신령혼과다못런주삼위일례온전이라자계시
 고성혈이또 혼오주의육신령혼과다못런주삼위일
 례를온전이라 초심은곳성례로더브러 혼의론이
 니라

니라

영부와성신이성조와혼가지로성례에계시나그계심이 다
 르고 혼그성례를령혼의령혼과함함도다르니라

○

날은바면주에 두가지잇스니 혼나 혼곧 온면주의례
 니곳이면주의성질이 오들 혼곧 온면주의형상이니
 곳이 빛과맛과향내와 둥글고모지며 크고적은모양

이러락덕이런쥬의명을밧드러성테를일우는경을
념후후에곳면쥬의테는온전이업고홀노면쥬의형
상만전과곳치잇서그안희실노오쥬의성테성혈이
곰초여면쥬의테를더신후니라또성테성스의보
존함이오래고잠간됨은면쥬형상이변후는지속을
떨오니면쥬형상이잇서변후지아니후면오쥬성테
또후그안희계시니곳성테성스도온전이보존후고
면쥬형상이변후야잇지아니후면오쥬성테는비록
변후지아니시나다만임의변후형상안희는다시계
시지아니시니곳성테성스도온전이잇지아니후니

라

○ 면주의 형상은 마치 병풍과 장긋듯 하여 오주의 성체성
혈을 그 리위사름의 육목이 능히 보지 못하게 함이대
략 처식으로 나무 판을 덮혀 그 리위사름으로 하여 곱
능히 그 남글 보지 못하게 함과 같으니라 또 사름이 눈
으로 비록 능히 성체를 보지 못하나 반드시 맛당이
이 밋어의 심치 말 거시니 대개 이는 면주의 친히 신
말씀이라 엇지가 히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생각으로 의
심을 내어 면주의 말씀을 전실이 밋지 아니 하리 오 곳
리로써 의론 하여도 또 혼가 히 대략 징험할 거시니

오 주의 사람 사랑 하시느니 무궁함도 있음이 그의 정을 통
하야 사람으로 더 브러흐 몸에 합함심을 그 장원 하시
리니 이는 성체를 일우심으로 쓰이에 온전이 그 즘을
엇을 지라 그러므로 오 주 예수 그리스우 시기를 원함
은 가히 이 과 여닐지 못 할 거시오 또 오 주 그리스우
샤 능히 못함 실바 업스시니 임의 성체를 세워 그의
정을 통함심을 원함 실진대 엇지 능히 그 소원과 곳치
못함 시리오 성암 보로 쇠스라 사디련 주의 말숨이
행함과 다름이 업스니 시초에 하늘도 업고 땅도 업거
늘 련 주 그리스우 명함시 매 련 디 즉시 나하나며 다른물

건이다 그러흔지라 성례도 몬져는 업더니 주ㅣ바로
소잇기를 명하시매 명과 못치 못잇섯다 하시니 우리
사름이 가히 밋지 아니치 못할 거시오 만일의 심을 내
여긋이 밋지 아니는 자ㅣ잇스면 곳련 주밋음을 비반
하는대 죄를 범하는 나라

⑤ 면병의 형상이 비록 대쇼ㅣ잇스나 다만 오쥬의 성례
는 대쇼의 분별이 업고 다과 의 다름이 업서 영영이 혼
갈곳은 신지라 탁덕이 미사할 때에 쓰는 면병의 형상
이 약간 큼은 써거양 할 때에 봉교차ㅣ우러러 첨비하
기에 편케 흠이 오령 성례하는 자의 쓰는 면병의 형상

이약간적음은써령슈흥기에편케흥이라면병형상
이비록대쇼에는호이나략덕과중인의령흥는바
다과의분별이업스니각사름이다오주의성례를
치령흥는나라또면병의형상을비록는화크고적은
일빅조각을문드라도성례는만만코능히는호지못
흥니미조각에다오주의전신이계신지라대략면경
에비컨대온거울을빛최는작거울속에온전흥는
출보고만일거울을가져는화대쇼빅조각을문드라
도곳빅조각속에각각온전흥는치되는니흥치만흥
거울의빅조각이비록세미흥어도났났치가히흥몸

의 온전함을 빚취거든 응물며 오주의 전능이엇지 능
히적은면병형상의미 조각으로당신신례의크심을
곰초지못하시리오

○ 오쥬 | 세상을 떠냐실때가임의갓가오매사름스랑
흥심이 지극히심흥시키고지극히뜨거오샤츄아사름
과서로리별치못흥샤논고로그신례를머물너사름
으로흥여곰친히령흥게흥시니곳비록하늘에올나
가계시나아오로세상에계셔사름과서로떠나지아
니신지라오쥬 | 종도드려날너글으샤되나 | 날마
다너희무리로흥가지로흥야세계궁진흥기까지잇

노라 하시고 또 곧으샤 디므릇 마시고 먹어나를령
하노는 자는 곳나 | 더 브러흐 가 지로 하고 또
하날 노 더 브러흐 가 지로 하리 라 하 시 니
대 여 서 로 스 랑 하 는 자 는 장 츳 서 로
떠 나 려 할 때 에 반 드 시 물 건 을 서 로
끼 쳐 주 어 그 서 로 스 랑 하 는 보 름 과 서 로
므 음 에 머 무 는 표 를 삼 너 니 오 주 의
우 리 사 름 을 스 랑 하 심 이 무 진 무
궁 하 신 즉 장 츳 즉 으 샤 승 련 하 려
하 실 때 에 사 름 의 게 끼 치 고 져
하 는 바 는 세 상 금 보 등 물 이 아 니
오 이 에 련 상 갑 업 는 보 비 니
곳 당 신 본 례 로 끼 쳐 사 름 을 주 셔
그 사 름 스 랑 하 시 는 무 궁 하
므 음 을 표 하 신 지 라 오 주 |

슈난전날져녁에면슈두가지를가져즈괴전능으로
변화하야즈괴성례성혈을일우샤종도를주어령케
하야곧으샤디이논곳내몸이니장춧너희무리를위
하야슈난할바이라하시고또곧으샤디이논곳내피
니장춧너희무리와중인의죄를위하야쫓아할날바
이라너희무리미양련슈찌제하논례를행할제나를
괴억하야행하라하시니이러므로오슈승련하신
후에종도와저위락덕이련슈의명을받드리미사대
제의례를행할시다만면병과포도슈두가지를써
오슈의경언을그우희념할즉면슈의례변하야오슈

의 신례와 피되어 연당에 계심으로 더 브러 다름이 업
노니라

성례는 이 오 주 예수 의 세우신 바 | 니 써 령은 자 의 초
성훈 신명을 보 존 하야 그 령 혼을 기 르 고 그 령 신 병을 끈
흐며 그 의 덕을 뜨 겁 게 하야 연 주 께 합 하 게 하 심 이 니 라
이 는 다 성례 의 대 령 효 힘이 라 오 주 예수 | 성례 의 효
힘을 우리 사 름 의 게 표 하야 알 게 코 져 하 사 곳 성례 를
일우 실 시 다 만 밀 떡 과 술 을 쓰 시 니 보 세 사 름 의 상 허
쓰 는 물 건 이 라 대 개 오 주 의 성례 사 름 의 령 혼 을 기 르
심 이 마 치 음 식 이 사 름 의 육 신 을 기 름 곳 하 니 음 식 은

능히 사람의 성명을 보 존하고 성례는 성총을 보 존하
야 령혼의 성명이 되어 하여곰 그 소죄를 범치 아니케
하며 음식은 육신을 보양하고 성례는 성총을 더어 령
신을 보양하며 음식은 사람의 질병을 다스리고 성례
는 성우를 더어 령혼의 이전병을 제하고 이후병을 피
하게 하며 음식은 사람의 괴력을 더하고 그 열골을 윤
탁게 하여 하여곰 그 아 름다 온 형상을 잊게 하고 성례
는 사람의 신력을 더어 만덕과 만선의 아 름다 음을 주
사 하여곰 그 미려함을 나타내게 하며 음식은 변화하
야 사람의 육신으로 더 브러 하 나히 되고 성례는 임의

령호는 자의 믿음에 든 주 오주의 성덕을 그 사람의 게
통호야 하여 곰그 신앙의 삼덕으로 오주로 더 브러호
테를 일위호 믿음에 합호게 호느니라

○ 넷적에 마귀원 조아담과 에와 두 사람의 범죄호기를
도 모호시 다만 호흔 맛시 물건을 써 유감호니 두 사람
이 마유를 드러 조차 그 물건을 마고 먹어 연주의 명을
범호니 곳음식의 물건을 인호야 연주를 일허 버리고
조귀와 중인의 령호의 죽음을 닐원지라 연주 | 지인
지 조호 사 두 사람의 끼친 바 해를 기워 중인의 령호를
건지고 저호시 매 곳음식의 물건을 가져 성테를 세우

신 후에 사름을 주사 써 상성 향는 량 석을 삼아 기리 죽
음을 면할 계교를 향시니 넷적에는 사름이 먹음으로
써 기리 죽음을 모름 썼더니 이제는 먹음으로 써 상성
을 잇음이 정히 맛당 향고 넷적에는 향입의 세물이 사
름의 기리 죽음을 날외 엿더니 이제는 향입의 신 량이
사름의 기리 살물 날외 임이 정히 맛당 향고 또 피츠의 서
로 더 흙이라 향물며 오주의 2장 원 향시는 바는 오직
우리 사름이 덧덧이 성례를 령 흙이라 인정의 2장 스
랑 향는 바 마시고 먹는 물건 못 향거 시 업는 고로
오주 1 성례를 세우시 매 다만 마시고 먹는 물건을 쓰

시니 보야 흐로 사름의 믿음을 드려 여덧덧이령하기
를 추향하여 성례의 흥은 을 남게 하시니라

● 성교회에 서임의 덩하여 봉고 하는 자 | 령성례 하기
를 지극히 적어도 미년에 흥번을 하게 하시니 곳 예수
부활첨례 전후 | 오아오로 미양병이 중하거나 목숨
을 일흔 다른 위힘을 만나 만일 히티하여 이 구구를 범
하면 반드시 크게 견주며 죄를 잊느니라 성례를 령하
고져 하는 자 | 반드시 령성례 예비하는 공부를 하고
령성례 하는 김흔도 리를 대략 밝힌 연후에 가히 령할
지라 대죄 있는 자는 몬져 맛당이 통회 덩기와

고명호는선공을그칠지니만일에비치못호자ㅣ잇
서성례를모령호즉이논련쥬를져브리논대죄물범
함이오또령성례호는본날에반드시엄히죄물직활
저니곳밤중브더령성례할때까지호덤물도가히삼
기지못함이라만일이죄를직희지야니코성례물모
령호면또호크게련쥬죄를엇을거시오병이중호
자논몬져음식을먹은후에령성례함이또호가호니
라령성례호는자ㅣ맛당이몬져공을세울지니곳즈
괴의스욕을이괴며말을적게호고무상호며경을외
오고쥬괴빌며즈괴의지극히천함을승복호고쥬의

지극히 높으신 마음을 알며 저귀의 신덕을 굿게 하고 망덕
을 든든이 하고 이덕을 뜨겁게 흠뻑하고 거시라이 곳치
령성례 하면 더욱 성례의 큰 은혜를 밧을 거시오령성
례 후에도 후맛당이 오주의 나를 무궁히 사랑하시
는 마음을 무상하고 우러러 오주나 내심중에 즐겨 거
흥심을 버라고 오를 후 마음으로 주께 귀구 하야 은혜
납기나 장도 혼귀회를 일치 말지니 천능하신 주나
내심중에 들으시는데 가정히 이 은혜를 구할 때라도
옥련주께 구할수록 더욱 옥련주의 흥은 을 밧으리라 저
세 흥은 성례요리와 선성복종칙에 비니라

고히성스

고히는이오주예수의덩흐신레니써사롬의령세후범
흐죄를샤호고그응당이밭을영벌을면케호고성총을
다시사롬외게티와그령혼으로호여곰료성의신명을
회복호야다시런쥬끼살아나게호삼이나라

이는다고히성스의호힘이라닐온령세후범흐죄를
샤호다힘은대개봉고호기전에범흐죄는고히를기
드리지아니호야임의령세홀때에다샤호고로오적
령세후범흐죄만본디고히의례로능히샤호는바
오닐온그응당이밭을영벌을면케호다힘은고히호

는례로응당이밧을바한이잇는별은반드시온전이
면홀게시아님이라고러므로고히호는자이다맛당
이힘써공을더어죄를보속홀져니만일성사에죄를
보속함이부족흐즉스후에런죄호는곳에느려죄를
보속호는고로움을밧아그보속이족흐날을게드려
보야흐로능히하늘에올나영복누림을엇을게시오
닐온성총을다시사람의게티우다함은대개다시탁
우다호는게시전에일흔바를히움을닐음이라곳고
히호는례는사람의이전일흔바성총을히와그령혼
으로호여곰이전일헛던신명을엇게함이라므르치

음으로령세호자 | 비로소련주의성총과령호의성
명을납엇시디령세후에임의대죄를범호즉다운천
이일혼지라고히홀때에다시련주의은해를납어다
서덕우시느니라

○히죄호는권은이오주 | 종도의게붓쳐주신거시라
오주 | 성베드루드려닐너콜으샤디너 | 반석이라
이반석우희내성교회를창립호리너마귀비록힘써
쳐도능히이긋지못호리라또장춧나 | 네게연당을
열고닷는죄를맛기리너므릇세상에서너 | 먹거나
풀거나호는죄는하늘에서또호미고픈거시리라호

시고 또 오쥬 | 모든 종도를 향하여 입으로 귀운을 불
 어 글이 사덕너희 무리 성신을 밧으라 모르너희 사
 는 바 사람의 죄는 곳 사하고 모르너희 머무르는 바 사
 림의 죄는 곳 머물니라 하시니 후에 종도 | 주의 명을
 밧드러 이권을 모든 위락덕의게 전하고로 이제 율행
 흠은 락덕의 본직이로 되오직 이명을 밧은 자 | 야시
 행할 거시니 이제 율행할 때에 락덕이 련 주의 율로 디
 신 하야 행하는 지라 그러므로 그 안 짐이 법관의 못고
 결단 흠과 못하느니 모르고 하느니 자 | 만일 칼을 찌거
 든 몬져 그 고방건을 씻거 든 몬져 버스 후에

여러나
 라 품속

예 좁고 신부를 공경하는 뜻으로 모른 채 벗고 갈 너그림을 보아 성수를
경하고 신부를 공경하는 뜻으로 모른 채 벗고 갈 너그림을 보아 성수를

내라. **탁덕의 것** 허물어 십조를 그 어성호경을 넘고

머리를 숙여 허저경을 넘은 후에 범후바 모든 죄와 각

죄의 번수를 고하고 탁덕의 명을 받드려 그 명을 신바

보속하는 선공을 행할 뜻을 결단하고 또 동회당기

고 탁덕이런 주의 명을 신경을 넘야 그 죄를 풀어 사

함을 기드려 나니라

○ **모르고 허의 은혜** 남기를 원할 진대 반드시 네 가지

예 비할 지니 하나 혼성찰이 오 들 혼 동회 오 세 혼 명

오 네 혼 고 명이 라이 네 가지 그 즉 지 못 할 야 하나 허라

도이저러저온전치못흐면샤죄흐는은혜를넘지 못
할뿐 아니라 도로혀흐가지큰죄를더으느니곳현주
의거룩흔례를경천이덕이논대죄오만일일년중에
이곳치고히흔번만흔즉성교회데삼규를범흔일대
죄를더으고혹인흐야성례를모령흔즉현주를릉모
흐고져브린일대죄를더으고만일일년중에이곳치
령성례흔번만흔즉성교회데스규를범흔일대죄를
더으니일노말미암아본즉고히흔번으로네가지큰
죄를범흐야고히흐기전죄에셔더흐니이러케고히
흐는자논엇지고히아닌이에셔더약흐고홍흐지아

나 흥라 만일 후에 허물을 곳쳐련 주고 죄사 중 심을
원 흥거 든 반 드시 맛당이 새 로 다 시 고 흥 더 일 즉 고 하
아 념 못 치 흥 야 곳 이 전 고 히 흥 죄 워 고 하 야 난 죄 흉 거
져 다 도 모 지 새 로 온 전 이 고 히 흥 후 에 야 가 히 려 주 야
죄 사 흥 시 는 은 혜 를 님 을 거 시 니 이 제 내 가 저 를 가 저
대 령 아 래 푸 노 라

일성찰

일손술피고
슬김아라

몬져 성찰을 아 니 코 후 에 명 빅 히 온 전 이 고 흥 가 는 심
히 어 려 온 지 라 그 런 고 로 모 르 고 히 를 원 흥 는 자 는 반
드 시 심 계 를 의 지 흥 야 도 목 을 조 차 밤 흥 바 죄 를 성찰

흥야 가지 가지 범 흥바 | 몇 번 인고 낫 낫 치 괴역 흥야
무음에 두어 써 고 히 흥 때에 가 히 온 전 이 고 흥 을 엇 게
흥 지 니 만 일 능 히 그 죄 를 다 괴 역 지 못 흥 거 든 이 전 고
히 흥 후 로 나 후 령 세 흥 후 로 조 차 거 흥 곳 과 흥 흥 업 과
사 관 사 름 을 성 각 흥 연 후 에 아 모 곳 에 서 무 슝 업 을 흥
흥 엇 시 며 아 모 사 름 을 사 관 때 에 성 각 흥 바 와 말 흥 바
외 흥 흥 바 | 엇 더 흥 고 딸 아 성 각 흥 야 낫 낫 치 십 계 에
맛 초 아 후 범 흥 엇 는 가 아 니 범 흥 엇 는 가 보 아 만 일 범
치 아 낫 거 든 련 주 짜 사 례 흥 고 만 일 범 흥 엇 거 든 다 시
미 도 목 에 몇 번 을 범 흥 엇 는 고 성 각 흥 거 시 오 만 일 능

히 온전이 죄의 수를 헤지 못하거든 대략 몇 번을 범하
였는고 생각함이 또 혼가 하더 만일 성찰을 아닌 연고
로 대죄의 류를 분별치 못하 고 대죄의 수를 불히지 못
하야 고히 할 때에 그릇 말하 거나 그 죄를 다닐 이 저 못
하면 곳 불지 못하 고 온전치 못하 고 히 되느니라

이 동 회

이 년 이 들 나 하
고 뒤 웃 춤 이 라

이 는 믿음 에 저 죄 를 원 하 는 전 절 하 정 을 발 하 야
출 하 리 죽 을 지 언 영 감 히 다 시 범 처 아 님 을 원 함 이 라
다 만 죄 를 혼 하 는 믿 음 이 다 름 이 잇 서 곳 지 아 님 고 로
동 회 상 등 과 하 등 을 는 호 니 상 등 동 회 는 이 저 죄 를

원훈훈이런쥬를만물우희스랑훈을위훈이니비컨
대효즈ㅣ어버이게죄를엇으매그장스랑훈을인
훈야어버이의뜻을상해음을참지못훈는고로모음
이압훈을이괴지못훈야그죄를뉘우쳐곳침곳고하
등동회는이런쥬스랑훈는모음이온전이업는거시
아니로되다만즈괴죄를원훈훈이런쥬의영고로벌
훈시고영복을주지아니심을두려훈을인훈이니비
컨대노복이상년의게죄를엇으매상년스랑훈는모
음이온전이업는거시아니로되다만그상년의엄훈
벌을두리는연고로그죄를뉘우쳐곳침곳훈니라상

동통회를 발하는 자는 벼룩형세나 후고히를 못하여
도 다만 고히나 형세 홀 뜻이 곧 절하여 커회를 맛나 거
든 곳 형세나 후고히하기를 모름에 덩항면 반드서
련주의 사죄항심을 넘나니 만일 홀연이 그져 죽어도
또 항하늘에 올라 무궁항복을 누릴 것이 오하 동통회
를 발하는 자는 만 알고히나 후형세를 못하고 죽기에
나쁜 죽디옥에 너려 영원항고로움을 받나니 대개 이
런 동회는 능히 스스로 족히 써련주의 사죄항심을 넘
게 하지 못하고 아오로 맛당이 고히나 후형세를 항후
에 야가히련주의 사죄항심을 넘게하나니라

삼명기

삼은곳치기
를명함이라

모르듯 능히 전절이 죄를 뉘우치는 자는 이에 전짓능히 곳
치고 선에 옴기를 명하리니 뉘우치능히 제 죄를 뉘우치어
들나 함며 또 십계를 범하고 저하리오 마는 다만 죄를
뉘우치며 도 전절함이 없는 자를이 귀여 해지 못함은
저라 그런고로 이제 명기 일단을 가져 각별이 의론하
야 써 사름이 더욱 명기의 공부를 더어 회죄의 이즈러
짐을 약간 짐게 하노라 명기는 곳 무음을 명하야 이후
는 출하리 세간만복을 일코만 고를 밧을 지언 명감히
련 주의 명을 범치 아니려 함이니 모르 명기를 전절이

못하느니 자는 불과 혼편으로 덩기 하며 혼편으로 쥘까
 하야 허물을 곳치고져 흠과 죄를 즐김이 두가지서로
 마음에서 화 능히 천일 혼지 향으로 선을 향하고 악을
 회홀 뜻을 결단치 못하느니 이는 덩기라 날은 지 못하
 지라 매개 비록 선의 아롬다 음은 사랑하나 선을 향하
 는아려 음은 파스려아니 하고 비록 죄악은 미워하
 나 죄의 즐거움은 버려지아니 하느니 죄의 즐거움을
 버리지아니코 죄의 악을 잊지 능히 버리리 오므로 모름
 지에 죄락을 버리지아닛는 자는 리사에 죄락이 반드
 지며 이를 버리느니 슬프다나 | 살았실 때에 버리지 못

흐물건과즐거움이죽을때가흐번니르면다나를바
릴지라너그죄락을바린즉만복을엇을거시오죄락
이너를바린즉만고를밧을거시너너미러바림이
크게다행치아니흐냐또사름이잇서허물을곳치고
적흐되다만속히못흐고오는날곳치기를말외여
어가너이런자는일병가히명키흐다날은지못흐지
라대더만흔죄와만흔악에무들기는허물곳치기를
어려워흐는가혹어라연고로오는날곳차기로말외
여가논거시그롬이뒤이에서더크리오오는날이나
르지못흐여또범죄흐고형악흐즉오는날이흐번나

근매 죄악이 더욱 만코 더욱 중하리니 오는 날 못치기
더욱 어렵치 아니랴 몸시에 못치고 저하면 못 능히 못
칠 거시 로티 금치에 못치치 아니하 고 리시에 못치기
로 천연 흠은 불이 못치고 저아 님을 드러냄이니라

소견고

사본은 전이
고흥이라

이는 조괴본몸의 악과 본업의 죄와 갓가지 죄의 수를
가져 낫낫치 심계조례를 의지하야 명백히 악덕의 압
회온천이 고흠이니 만일 혼가지 큰 죄를 범기거나 후
죄의 수와 매죄의 속흔일을 더하며 감하거나 후고 죄
를 의심하디 실노잇슴으로 고하거나 후고 죄를 아디

의심으로 고혹거나 후죄업는 거슬잇슴으로 고혹거
나 후고죄를꿈이거나 후대강만닐으고 조세히아니
커나 후에 들너는 말을 써 닥덕이 능히 베풀어 아지 못
하게 하면 곳 온 전치 못하고 히되느니라 고히할 때에
반드시 한만 혼일을 날으저 못할 거시오 가히 다른 사
름의 죄를 드러내지 못할 거시오 조괴공로를 날갓지
못할 거시오 맛당이 수다 혼말을 말고 불과 조괴죄를
날으기를 무음속에 잇는 대로 할지니 비컨대 초죄를
범한 자야 아모 거리에 행하다가 어느 집에 가셔 었던
사름과 사괴던 그런스 정은 날으지 말고 불과 날으디

무고히쇼치몇번을범함엿다함거나후병이나아모
연고잇서쇼치몇번을범함엿노라할거시오만일
락덕이요긴함연유를무르면북이더답함고가희스
양치못함느니라전고히함후로조차큰죄를범쳐아
니코쇼치만잇거나후대죄를범함엿는가의심함는
이논대로이전임의고히함바함두가치대죄를가져
다시고함면공이잇고검함야통회함는정과공희의
은혜를더욱엇을거시오만일다시고치아니함여도
또함죄는업스나다만통회가부족함여이고희의은
혜를받기어려울가두림이니엇지라당함고도함법

을 힘써 행치 아니하리 오

죄를 너우기 를 권하 아 라

○ 오호 나 라 입 으 로 는 회 죄 하 노 라 하 나 회 죄 할 줄 을 아
 지 못 하 는 자 를 이 과 여 해 지 못 할 지 라 이 에 후 번 회 죄
 경 을 념 하 거 나 후 후 번 마 리 를 따 회 드 하 거 나 후 후 번
 가 슴 을 두 드 림 으 로 써 스 스 로 족 흠 을 삼 아 날 이 덕 화
 죄 하 노 라 덩 기 하 노 라 하 디 다 만 실 노 탈 곳 만 치 또 통
 회 하 는 정 이 업 는 고 로 기 리 능 히 사 죄 하 는 은 해 를 님
 치 못 할 지 니 성 경 에 글 이 사 디 무 름 흥 상 오 주 여 오 주
 여 브 르 는 자 께 궂 가 히 려 국 에 들 들 었 지 못 하 리 라 하

시니 정히 이를 날음 심어라 비컨대 세상 소민이 남음
귀범 죄 등 고엇지 혼 번 따 회 업 드리고 혼 번 사 등 심을
주 힘으로 그 응당이 밧을 벌을 면하라 오이게 통 회 등
는 좁 된 의 리는 입으로 념 등 고 머리 를 좃 고 가 심을 후
도 할 때 를 에 잇 지 아 나 설 도 사 름 의 무 음 가 온 대 조 귀
죄 를 원 혼 등 는 진 절 혼 정 을 밧 등 거 에 잇 고 의 련 정 이
또 혼 우 연 어 가 하 밧 혼 바 | 아 나 라 반 드 서 짐 짐 아 두
어 가지 도 리 를 생각 등 야 조 귀 의 련 주 를 스 랑 힘 과 죄
를 혼 등 는 무 음 을 뜨 겁 게 혼 연 후 에 야 가 등 니 조 세 힘
은 무 상 신 공 과 스 종 략 의 에 보 라 이 두 책 이 여 러 곳 을

포함함이 다 능히 사람의 마음을 열여 넓어 짓 못치게
하니 각 사람이 서로 가지 못할 여 생각함이 가
라

○ 므릇 세상 사람의 3 장의 들나 함은 작 1 초 괴를 해 함
는 것 못 함겨서 업고 3 장 사람을 해 함는 작 1 죄악
함겨서 업는 나 만일 입으로는 죄를 함 함고 믿음에는
죄를 함 함는 지 극히 또 거 온 정을 받치 아 년 죽이 노 죄
로써 심히 가히 이 돌나 할 큰 해 오 가 허 스 랑 할 바 1 업
는 작 1로 아 자 아 남 이 라 함 물 며 이 런 이 들 나 함 으 로 써
가 히 천 철 함 통 회 라 닐 으 마 사 람 이 조 곱 나 를 해 함 면

비록 가히 혼 혼 자 아니 오고 장가히 사랑 혼 온 자
라도 나 오직 입으로 혼 혼 뿐 아니라 또 믿음으로 원
혼 혼을 이기지 못하려 든 혼 물며 죄 악의 비 혼 더 업는
큰 해를 가히 혼 치 아니 하라 또 혼 번대 죄를 범 혼 으
서 곳 현 주만 가지 복과 만 가지 아 름 다 음 의 별 회 를 일
코 만 가지 고 로 음 과 만 가지 악 의 근 원 을 잊 어 능 하
런 주의 의 조 가 되지 못 하 고 변 하 야 현 주의 원 슈 가 되
고 사 마 의 종 이 되고 그 장 더럽 고 이 들 오 온 죄 인 이 되
여 죽 는 때 혼 번 니 르 면 더 욱 에 는 려 세 상 고 로 음 으 로
능 히 만 의 하 나 흘 비 치 못 혼 만 가지 고 로 음 을 기 리 받

으리니 일노 보면 죄를 이 들나 하는 압흐고 설움 이 었
지 세간 만화를 밧는 압흐고 설움 에 서 만 만 비나 맛당
이 크 지 아 나 라

○ 므릇 악을 행흐고 죄를 범흐샤는 반드시 악을 원흐흐
고 죄를 이 들나 할 날 이 잇스니 네로 브러이 재 지 와
이제 브러이 후 지 죄를 범흐고 그 죄를 이 들나 아 날
자 업스더 오직 죄를 이 들나 하는 지 속이 오지 아 년
치라 만일 세상에 잇슬 제 죄를 흐면 더욱 에 서 흐흐
기를 면흐고 세상에 잇슬 제 죄를 흐치 아 년 즉 더욱 에
노혀 흐흐려 디어 나 혼이 크러 오세상에 잇서 죄를 흐

흠은경하고또잠간인흠이오다옥에느려죄를흠흠
은충하고또영원흠흠이니이제세상에셔흠흠죽참
간이오미흠흠을인하야심히크고영원흠흠을면
나크게다형치아니며세상에셔죄를흠치아닌죽참
간이오미흠흠을스양흠을안하야영원하고비할데
업는큰흠을닐와나크게홍하치아니야세상에잇서
죄를흠흠은비록경하고또잠간이나크게유익하야
곳가히이전악을슬와긴벌을면하고가히공덕을더
어영복을닐월거시오다옥에느림을기드려흠흠면
크게해로와곳성덕을온전이망하야영상을다알코

취악을 더어 영고 룰비나 더흥니 일노 말미암아 생각
건대 엇지가 히스 후에 죄를 흥흥기로 밀외여 금세에
셔 흥흥기를 힘쓰치 아니 흥려오

○ 더욱 사람의 밝는 바고 로 음이 심히 만코 심히 흥흥디
다 만코 장밧기어려 온고 로 음은 곳 성시에 범취 흥근
심과 성시에 회죄 못 흥설 음이 내개 련 주 | 만 흥세
월을 주심은 그 죄를 누웃고 곳 처가 히 성인 과 더 브러
서로 흥 품이 되어 흥가 지로 만 부과 만 락을 련 당에 밧
게 흥 심이 어 놀고 때를 누웃 처려 물을 곳 처 처 아 바
흥고 도로 혀 일 월을 속 절 업시 폐 흥고 쳇 퇴 아 씨 스 스

로마귀위비루흐종이되어흐가지로만화와만고를
디옥에밧으니일노보면원흐흠이치극홀치라이월
흐흐논고로음은엇지심히난감흐고로음이아니리
오디옥에잇논차로만일전에망녕되이페흐알성세
월에서이제다시편시를엇어써통회치과흐야차하
밧는바통흐을면흐기를브랄친대비록세간만복을
다브리고세간만고를다밧을지라도반드시심히씩
온일과심히즐거움으로삼으편마는다만이편시를
영원이가히브랄길이업고영원이브랄지라도또흐
가히엇을길이업고로그원흐흐논고로음이더옥

김고더옥중흥야엇지다른고로음에가히비할바
리오또흔날흔히의흔이아니라백년에이러듯하고
천만년에이러듯하고곳길고멀고못참아업는흔일
따름이니이런원흔의고로음을엇지당항리오슬프
다더더옥사름은회좌흔편시를바라뒤능히엇지못
흥거늘우리는만흔세월을엇어망녕되이쓰면후날
에편시를엇어낙우쳐허물을곳치고져흥여도능히
엇저못힘이엇지더와다르리오
○좌란자는다만그해만가히흔할것뿐아니라또그악
이더욱차히흔할겨시잇스니날은바좌의악은다

현쥬를 비역함을 인함이라 현쥬의 성은 무궁히 가히
스모 할 괴묘 중심이오 현쥬의 정은 무궁히 가히 사랑
할 아롭다 오심이니 모릇 현쥬의 괴묘 중심을 거스림
은 못무궁히 가히 원할 악어 오무궁히 가히 할 할 더러
음이라 또 현쥬는 천능 천천 처하시고 지존 지귀 능
서니 그 장가히 공경 할 자니 시며 그 장가히 받들 자니
서어 볼나는 이러 든서 극히 미하시고 극히 천하야 공경
할 줄도 모르고 봉스 할 줄도 아지 못하고 도로 혀 죄악
으로 비역하시니 가히 심히 원할 처 아니라 나의 밧은 바
현쥬의 은혜를 이 괴여 해치 못하느니 현쥬나 나를 믿

드시고나를기르시고나를보존하시고강성홍야사
름이되사고난을밧고죽음을밧으샤나의죄를구속
하시고나를빠사성교에나아오게하시고나를마귀
의한악함에구동시키고나를천만의힘흔디빠짐을허
치아나시키고나를성홍으로주시고나를드리여하늘
에올리시니가져가지만흔은혜를능히다괴록치못
할거시어늘나는다만헛꽃만흔공로가히이런큰
은혜를밧을거시업슬뿐아니라아오로심정이업는
사름곳홍야우리은주를감샤할줄도모르고감히방
스리형악홍야죄를엇으니이죄의악이엇지장가

히 출출 무궁한 악이 아니라 대고 나나 악범은 바 죄심
하 만 초심 하 중후 고 죄를 범출정상 도 삼해 취루 공야
비록 연추의 음후 신바 | 아니라 도 본 다 스 | 로 배 루
흠이 작극 하 심후 야 사 롬의 감 하 듯 저 못 할 바 | 오 본
던 의 리 에 어 감 이 작 극 하 심 후 야 사 롬 의 구 장 맛 당 야
취 할 바 작 | 어 든 후 물 며 연 추 의 엄 음 중 신 바 | 되 는
겨 슬 나 | 또 감 히 범 후 야 이 구 장 취 악 흠 으 로 써 저 존
치 귀 후 신 추 친 치 우 리 저 인 지 조 후 신 대 부 와 실 실 이
우 리 큰 은 추 를 비 역 후 엿 신 니 배 죄 의 악 이 더 옥 김 고
더 옥 중 후 야 가 히 비 할 바 | 업 는 악 이 라 원 후 흠 을 엿

더케 하리오

음전 **고** **음** **을** **권** **음** **이** **라**

○ 빛노림이 선악의 다름이잇스니 악을항함을 벗그림
 은 그 창착흔 벗그림이 오고 하흔기를 벗그림은 그 창
 악흔 벗노림이라 마귀 상히 사림의 선을 새와 자 조사
 림을 악에도 모흔고로 벗그림은 깃들 뒤집어 써 사
 림을 달녀 여범 죄할 때에 눈 벗그림이 니 냇적에 사갈 노성안아
 리 할 때에 눈 벗그림이 니 냇적에 사갈 노성안아
 마귀가 호하흔려 눈 모든 사림의 선악에 앓음을 보고
 보라던 여 귀 무어 슬하흔려 왔노요 마귀 더 답하단

나기여외외도흔일을하노라성인아우셔곧은디너
이러듯취악하커니능히무슴도흔일을하랴오디
답하되능히사름의물건을보환하노니대개이전에
사름이범죄하기를붓그릴때에나그붓그리는
음을배아사하여곰그범죄함을붓그리치아내게
였더니이제고히하러할때에그온전이호명하야
죄하는은혜를얻을가두리는고로다시그붓그리는
只음을보환하야하여곰그하기를붓그리게하노라
하니차히알지라마귀힘써우리를해하러함이우리
즈귀를구하려함에서더흔고로마귀의속임을받는

자를 능히 다 헤지 못할지라 고히 하는 자 비록 심하
만 하도 온전이고 하는 자는 심히 적으니 더욱에 너리
는 자 1 2 장만 코하늘에 오르는 자 1 2 장적으니라
성원선신 1 탄식 할야 곧 5 덕고 명 할기를 벗고려다
옥에 너리는 자의 수를 헤지 못한다 하고 련 주 1 성녀
더리 사를 무계 할야 곧 5 사 덕 더욱에 너리는 사람이
반남아고 명 할기를 벗고 림을 인 할야 온전이고 하는 자
못 할연고 1 라 할시 니 가히 삼가지 아니 할라

○ 범 죄 흠을 벗고 리지 아니 하고 고히 흠을 벗고 림은 자
극 할 취악이라 대개 범 죄 흠으로 마귀의 용이 되고 고

히 함으로 현주의 의조가 되거늘 너가 범죄 함은 벗고
리지 아니하고 고히 함은 벗고 리면 마귀의 취루 현종
이 됨은 벗고 리지 아니하고 현주의 아람다운 의조가
됨은 벗고 리고 무슴다름이 잇스리 오만 일쇼민의 비
천 현종이 됨은 벗고 리지 아니하고 황제의 지존 현아
들이 됨은 벗고 리는 자아 잇스면 너그 취악 함을 이 들
나 아니하고 리오 함을 너가 마귀의 종 되기는 벗고 리
지 아니하고 현주의 의조 되기는 벗고 리면 어지니 장
가히 원 현 함 취악 현 사름이 아니라 또 범죄 함은 곳 죄
악으로 내령 혼을 더러여 독으로 죽임이 오고히 함은

곳신약으로령혼의더러음과이전먹은독을풀어
여곰다시이전아름다음과이전성명을엇게함이어
늘너이제범죄함은벗그리지아니하고고히함은
벗그린즉이논령혼의더러음은벗그리지아니하고
령혼의조출함을벗그림이오썩은내나는영원이죽
은령혼은벗그리지아니하고장아름다와덜덜이
사는령혼을벗그림이니엇지이비할디업논미련함
이아니나세상사름이비록장미련혼자나엇지
더러온것으로벗그리지아니코조출혼것으로
가히벗그릴자잇스며엇지저의썩은내나는몸으

로써 붓그리지아니코 꽃다운몸으로써가히붓그리
자丨잇스리오항며령혼이죄를범후는천만
러옴의더러옴과천만송장내옴새로도능히만분의
일을비치못할거서어늘너丨또붓그리지아니
하니
마귀의모진유감을넉지아낫서면엇지능히
혼미함
이이에너르리오

○ 머릿고히를붓그리는자는다 망녕되어
생각항던내
죄를드러내면스스로악후
사람이오신부의가히
슬
히여할자로나타냄이
오죄를숨김은스스로
착후사
름과신부의가히
귀히덕이고스
랑할자로알게
함이

라 함을 인함이니 이는 크게 그 도대개 너 죄를
드러낸 즉 착훈사름과 가히 사랑할 자로 알게 하고 너
| 죄를 숨기고 속인 즉 악훈사름과 가히 슬히여 할 자
로 알게 하고 너 고히 할 제 너 죄를 숨김은 마귀의 꾀
음이며 악인의 일이 오고 고히 할 제 너 죄를 드러냄은
천주의 명이며 성인의 일이라 너 | 마귀의 꾀음을 조
차 악인의 일을 행할 면 너 능히 너를 중히 너 일선인으
로 보고 천히 너 일악인으로 보지 아니 하며 너 | 천주
의 명을 조차 성인의 일을 행할 면 너 능히 너를 의 들 오
온 악인으로 보고 사랑할 온 선인으로 보지 아니 하며 너

오호를며 사름이 성인 됨은 죄를 쇼멸하고 덕을 보존
함으로 말미암지아 날이 업고 악인 됨은 다 덕을 쇼멸
하고 악을 보존함으로 말미암는지라 조귀죄를 고히
함으로 죄를 쇼멸하고 덕을 보존함으로 고히로써 가히
성인이 될거시니 엇지 호야 너를 악자로 보며 조귀죄
를 숨김으로 덕을 쇼멸하고 악을 보존함으로 조귀죄를
숨김으로써 악인이 되니 엇지 호야 너를 선자로 보리
오몬져 악을 짓다가 후에 선인 된 자를 이귀여 헤지 못
호나 그러나 그 선인 됨은 다 온전이고 명함을 인 호야
시작 호엿시니 너ㅣ 임의 그 몬져 악을 비화죄인이 되

엇거니이제엇지그훗션을비화온전이고명함으로
써션인이되지아니하노요

○므릇사람의악을하노는일은대도이것히사람이친소
업시알뿐아니라아오로루설하디사람의고히흔죄
는불과흔위신부이알고또능히밧과루설치못하노
니너이악을할때에모든사람의알고드러냄은무셔
워아니하고고히할때에엇지가히신부의네악을알
물두리리오고히의문안을닐이디비밀흔문안이러
하니대개이문안이규구이잇고명령이잇서이문안
속에는엇디흔일을의론치말고다그장비밀하고그

장근엄하야 신부의 뜻은 바고히 하는 죄마치바름이
귀에저남곳하야 곳드르매 곳흐려버려짐음에 품어
두지 못하려든 함몰며 능히 루설하야 온세상에 왕이
능히 신부를 강박하야 너의 고히흔 죄를 드러내게 못
할거시오성스에 능히 사람의게 전하야 알게 못하며
또 능히 네게도 다시 전하야 알게 못할거시니 임의
그런즉 반드시 고히흔 죄를 벗기루설하야 네일함을
더러일가 두릴거시 업느니라 또 고히란일이 능히 사
름의게 해를 끼치지 못하느니라 인바 무삼해함을
의론치 말고 고히의 뜻이 또흔 그 죄를 명함이 아니라

불과 그 죄를 사하야 더욱에 너를 면하고 하물어 오
름을 잊어 무궁한 복을 누리게 함이니 일노 보면 잊지
가히 호의를 인하여 온전이고 함을 헛되이 두려 조의
의 영복을 일코 영고를 무릅쓰을닐외리오

○
무릇 고히 행기를 부끄러는 정에 무든 자 힘써 다스
려 온전이고 하고져 할진대 김히 심판의 소정을 생각
함곳 흐거시 업스니 대개 심판할 때에 만민의 선악이
낫낫치 만민의 압히 드러나 알게 하니 이때에 부끄럽
고 욕됨이 었더 할고 만일 너 범한 죄와 범한 죄는 정
상과 연유를 가져 낫낫치 할 장에 그리고 써 큰져 조가

온대결어중인이뵈이보게흐면너ㅣ엇지능히붓그
려죽지아니라흐믈며너ㅣ범흔죄다련신과마귀와
만민의게나라나뵈이뵈리니이러듯흐붓그럽고욕
됨을엇지견디리오흐믈며련슈와련신과만민이다
슬희여흐야너를비홀디업논악자로원흔흐며마귀
논즐거워흐야너를작업논밋친자로희쇼흐리내
개너ㅣ살앗실때에흔가지죄의더러움을흔사람의
압희숨김으로조괴만죄의더러움을련신과만민의
압희드러남을닐외고너를불상이넉이논흔사람의
압희붓그러움을죄함으로너를원흔흐논만민과희

쇼하는 모든 마귀의 압박 벗고 가볍고 옥됨을 날의 고도
 혼말을 앓김으로 현당만복을 일코 더우영고를 엮음
 을 날의 나엇지 심히 이롭고 가히 우셔 운밋침이 아니
 냐 만일 너 즉 금미리 네 죄를 고히 혼즉 죄를 면하여
 심판날에 능히 다시 취약함을 보지 못하고 도로 려
 장미선함과 큰 영광과 큰 쾌락을 볼 거시 나가히 삼가
 지 아니라

고히 혼기를 보코 리는 자는 주나 더욱에 만고로

벌하는 것이 라

○ 넷적에 혼부녀 사음죄를 범하고 본따 신부의 계고

히 흠을 벗그려 먼 되셔 온탁 덕을 보고 발분 흥야 온전
이 고명 흥려 흥더니 고히 할 때에 잇는 바 죄악을 다 그
장복이 고 흥더 다만 이 샤 음 죄는 배 화 곳 치 벗그려 날
은 지 못 흥니 이 때 탁 덕의 벗 흥나 히 잇서 멀니 안 자 경
을 외 오 다 차 보니 부녀 | 미 양 흥 가지 죄 를 고 흥 매 흥
낮 머 구 리 입 으 로 조 차 밧 그 로 나 오 고 장 초 못 츠 려 흥
때 에 보 니 흥 머 구 리 더 크 고 더 러 온 짜 | 오 래 입 스 이
에 잇 서 나 올 듯 나 올 듯 흥 다 가 나 오 지 아 니 흥 고 도 로
드 러 가 니 몬 져 입 에 서 나 온 머 구 리 딸 아 다 시 다 입 으
로 드 러 가 는 지 라 그 벗 이 일 노 썩 과 이 히 녀 여 후 에 탁

덕과 동행하다가 이전 본바를 고하니 닥덕이 두리더
런쥬이 일노써 부녀의 숨겨고히치아닌 죄잇슴을 나
라내심인가하야 밧비도라와사혁하야써 구하려하
더니 이때에 이부녀이 임의 죽엇는지라 두위신부이
란식함을이괴지못하야그더옥에논런가두려이에
런쥬괴사함을괴구하더니 런쥬이곳이부녀로복이
나타나게하시니 형상이 심히더럽고 심히고로외목
은흐가둑불스슬노즈기고두큰비얇이몸에워히여
차숨을너홀고두낮머구리두눈을물고입과코호로
다모진불과더러온내음새를받하고머리털이아래

로드리운덕네발가진비얌이니홀고두샤오나온개
논두손을물고온몸에모진불꽃치발하고그몸이일
절만가지고로음을온천이그자흔에망을두고점점
헹헹야락먹의압회니르러스스로곧이덕나논곳이
전고히헹던부녀이라나샤음죄를범함이다른죄
에비져더크고더더러오니곳이나고져하다가나지
아닌큰머구리라모임에뵈이고헹기룰생각흔죽머
구리나오고져다가벗그림을먹음어고치아닌죽
머구리나가지아니헹고다시안호로드러오며벗그
러온모임이임의명헹매모든죄온천이잇서헹나로

가히 사하지 못하느니 고로 몬져 입에 서나 갓던 머구리
덜와 다시 입으로 드러온저라 그 후에 련쥬나를 영
원한 만고로 벌하사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에 응하사라 대개 내발가진 비암이 머리털을 너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머구리 두눈을 너를 만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름다온 남조보기를 도화함을 벌함이 오입으로
진불과 더러온 내음식을 두함을 만나나나나나나
방하고 망녕되이 사음의 말함을 벌함이 오두비암이
가슴을 너를 만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흠을 벌흠이 오사 오나 온개 두 손을 너 흘문나 | 손으
로 오예 흠거 슬문 짐을 벌흠이 오든 바대 망과 온몸에
만가 저고로 오음이 온천이 그 짐은나 | 몸으로 오예 흠
샤음의 일을 형흠을 벌흠이라 하니 탁덕이 무려 곧이
더사 롬이 더욱에 떠러 지는 자 | 엇더 흠죄를 범흠을
위흠이 노더 답하더 세 사 롬의 죄종종 곳지 아니하
니 더욱에 누리는 연고 | 엇저 곳하리 오우리 동부녀
의 더욱에 누리는 연고는 대도 | 네가 차지잇스나 하냐
흔대 류계 샤음의 죄를 범흠이 오들 흔빅계로 얼골을
꿈여 사 롬을 짓기는 죄를 범흠이 오세 흔무당과 샤슬

을 밋는 죄를 범함이 오네 혼고 흥기를 붓고려 온 전이
고치야 년 악을 범함이 니이 곳 혼부녀 | 임의 더욱에
누린 이 룰이 괴여 헤지 못 흥 누니라 말이 못 츄 매 든 바
대 망이 벌 나가 더니 부라 보 매 따 히 터 지고 더욱에 떠
러 치 더 라 현 주 | 이 부녀로 흥 여 곰이 곳 혼 형 상 을 드
러 내 게 흥 시 고 이 현 말 을 날 으 게 흥 심 은 사 름 을 인 도
흥 야 고 히 흥 기 를 붓 고 리 는 악 을 경 계 흥 야 써 영 벌 을
면 케 흥 심 이 니 가 히 정 계 치 아 니 흥 라

흥 야 고 히 흥 기 를 붓 고 리 는 악 을 경 계 흥 야 써 영 벌 을

면 케 흥 심 이 니 가 히 정 계 치 아 니 흥 라

종부경소

종부논이 오주에 수의 덩하 신래라 써 병중훈사 몸의 덩
흔와 연약함을 견고히 하고 그 죄를 사하 고 그 신력을 더
하 고 성우를 주어 써 능히 병중훈에 마귀 유감을 물리치
고 다 못 오 주의 슈난하 신공로 힘남어 던 당의 무중훈
복을 주어 바라게 하 고 또 오 주이 에 레를 덩하 사 써 육신
의 연약함을 견고히 하야 후하 여 곱그 병이 낫게 하 시 고
후하 여 곱병의 고로 음과 다 못 금세의 환난을 좃아 밧아
써 평상죄를 보속하 야 죽은 후에 죄에 응하 바 중훈 벌을
면하 게 하 심이 나 라

이 는 다 총 부 의 효 힘 이 라 구 세 작 지 인 지 스 흥 신 오 주
예 수 | 성 스 류 단 을 예 비 흥 사 세 상 사 름 이 령 혼 의 성
명 을 엇 고 보 전 흥 게 흥 시 고 밋 그 무 든 바 죄 악 의 병 을
구 흥 야 다 시 령 혼 의 이 전 평 안 흥 을 엇 게 흥 시 며 또 종
부 성 스 알 단 을 예 비 흥 심 은 병 인 이 세 상 을 버 릴 때 에
육 신 과 령 혼 의 연 약 흥 을 전 고 히 흥 야 흥 여 곰 능 히 고
로 옴 을 흠 아 밋 아 마 귀 의 독 흥 유 감 을 물 니 처 게 흥 심
이 라 성 야 고 버 | 현 주 의 명 을 전 흥 야 곧 으 사 더 너 희
중 에 병 든 자 | 잇 거 든 성 교 회 락 덕 을 청 흥 야 병 자 의
게 념 경 흥 고 현 주 의 일 흥 을 인 흥 야 성 유 를 버 르 면 이

에 신덕의 괴도ㅣ 병자를 구할 거시오련 주ㅣ 또 혼 그
근심과 고로움을 가비 압게 하시고 아오로그 후잇는
바 죄를 사하시리라 하시니라

○ 오직 신부ㅣ 능히 종부의 죄를 행하느니 이 죄를 행하
고져 하면 주명을 받드려 병인의 오관에 성유를 받
며 오주의 명하신 바 종부 행하는 경을 념하느니라
바 르는 바 오관은 곳이 보기를 마 음아는 눈과 듯기를
마 음아는 귀와 먹기와 말하기를 마 음아는 입과 맛기를
마 음아는 코와 다질님을 마 음아는 손이니

슈족과 박에 다잇스디루별이 손이 더하고로 성고 회
에 석전신의 디신으로 손애 성유를 붓치게 하시느니라 이 오관의 바

종부

六十三

림은성교회공번되어행하는례라오관에후하니
나쁘르지아니면그례를일우지못할거시오또성유
를발과허리에부르니발은우리를행동하야범죄케
함을인함이오허리는그속의자리됨을인함이라
다만발과허리에부름이성수를일움에요긴치아니
하야오관에만부름즉종부례가히온천이그갓다닐
을거시오또흔병인가히종부의은혜를넘을지라
그런고로부녀의게는례모에아담치아닌고로허리
에성유를부르지아님이또흔가하니라

찰목

눈에부
름이라

병인이 평시에 비리의 빛을 보기를 즐겨 눈으로 만흔
죄를 범하고자 이제 신부 | 성유를 눈에 보리며 병인
을 위하야 련 주께 구하야 글으되 보라 너니 련 주는 이
거룩한 종부와 다 못내 지극히 인자하신 사랑을 인하
야 그 눈으로 범한 바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찰이

귀에 보
름이라

병인이 평시에 비리의 말을 듣기를 즐겨 귀로 만흔 죄
를 범하고자 이제 신부 | 성유를 귀에 보리며 병인을
위하야 련 주께 구하야 글으되 보라 너니 련 주는 이 거
룩한 종부와 다 못내 지극히 인자하신 사랑을 인하야

그 귀로 범함한 바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찰비

코에 보
림이 라

병인이 평시에 비리의 향기를 맛겨코오로만
흔 죄를 범함하고로 이제 신부 | 성유를 코에 보르며 병
인을 위하야 련 주께 구하야 곧 | 덕 바라느니 련 주는
이 거룩한 종부와 다 못내 저 극히 인자 하신 사랑을 인
하야 그 코오로 범함한 바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찰



김에 보
림이 라

병인이 평시에 비리의 맛을 즐기고 비리의 말을 날으
거를 즐겨임으로 만흔 죄를 범함하고로 이제 신부 | 성

유물입에 버르며 병인을 위하야련쥬찌구하야 곧으
다 버라느니련쥬논이거룩훈종부와 다 못네지극히
안초흥신사랑을안하야그구미와말함으로범훈바
모든죄를샤하소서 아멘

찰수

손에
몸이라

병인이평사에바리의거슬즐겨스지백례의다질님
으로만훈죄를범훈고로이제신부—전신에붓치는
뜻으로성유를손에버르며병인을위하야련쥬찌구
하야곧으디버라느니련쥬논이거룩훈종부와 다 못
네지극히안초흥신사랑을안하야그다질님으로범

흔바 모든 죄를 사함소셔 아멘

또 흔발과 허리에 각각 성유를 바르며 이 곳 흔경문을
넘흐느니라

④ 므릇 교중에 병이 위티흐야 죽기에 림흔쟈는 다 맛당
이 종부를 령홀거시오 만일 선악을 분별치 못흐는 어
린으희와 비안희 풍병으로 밋친쟈는 다 가히 령치 못
홀거시오 후어 림으희 선악을 분별흐는 여부를 알기
어려온즉 심새어 후에 니르러는 가히 종부를 령홀거
사나라 미양맛당이 종부를 령홀 때를 맛나거든 가히
낮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천연흐야 병인이 혼미흔 때

에너르러비로소종부를홀거시아니라맛당이병인
의심중이명빅훈때를밋쳐스스로신망의삼덕을발
하여씨종부를령하여야이에종부의신은을님느니
라

○므릇대죄잇는자는몬쳐고히훈후에가히종부를령
홀지니만일고히훈지못하는자실음훈이곳훈이
반드시맛당이천심으로통회하고명기훈후에야종
부를령하여이에현주의성총을님느니라므릇맛당
이님의적물이나님의명성을갑고기울자는반드시
맛당이그력량대로속속히갑고기울지라가히후로

밀위지못할거시오더욱가히다른사람의게부락하
야오는날에다신하야기우라하지못할거시니만일
이때에실노능히속속히잡지못할진대명빅히혜여
다른사람의게부락하여잡지함이즈연후리세니라
남으로더브러서로원슈치은자는몬져맛당이화목
할거시오나를범죄하게하는벗은몬져맛당이끈할
거시오일절대죄를범할연유잇는자는반드시맛당
이속속히끈흔연후에야가히선종하야승현하기를
브랄지니만일게어른모임을내여끈치아니면죽는
때에니르러비록몬져고히하고령성례하고종부함

을엇어도 다만 능히 잘 죽어 승려호지 못할 뿐 아니라
도로 허약히 죽어 디옥에 내려 영원호고 로움을 밧는
니라

○ 병인을 돌보는 자 부모와 가인과 친척과 교우호호인
는 호호번 병이 위티호호을 보거든 반드시 맛당이 힘써 병
인을 데성호고 진귀호야고 히령성례호는 공을 세우
게 호되 호호병인으로 호호여곰 성당에 내려 려령호게 호
거나 후신 부를 청호호여 그 집에 림호야령호게 호호지니
만 일 게 어 린 무음을 내여 병인이 고히와령성례호호을
엇지 못호고 죽으면 사 림을 사랑치아닌 대 죄를 범호호

이오 후병인이 구구대로 고히령성례함을엇고 종부
를령항기비편항면신부씨종부주시기를청항지아
니 항여도또항가히대죄업슬거시오만일병자니능
히고히령성례항지못할때에니르면돌보느자니반
드시맛당이신부씨종부주시가를청항여야방야호
로가히대죄범함을면항느니라그러나고히항기전
에돌보느자니몬져맛당이고히등요리를복이강론
항여병인으로항여곰드러요리를명백히알고다못
런주를만물우희사랑함을위항야통회당기항게할
지니만일병인을교훈항기에게어름을인항야병인

이성 스를 모령 하야 그 신은을 저 버리게 하 면엇지 큰
죄를 범함이 아니 리 오 또 종 부를 령 하 기 전 후에 반 드
시 맛 당 이 상 상 권 하 야 일 심 으 로 련 주 명 을 순 종 하 고
상 히 련 주 를 밋 고 버 라 고 스 랑 하 는 정 을 발 하 고 흥 심
으 로 사 오 나 온 성 각 을 끈 허 마 귀 의 독 훈 유 감 을 물 니
치 게 할 지 니 라

Handwritten text on a page with horizontal lines. The text is extremely faint and illegible due to the quality of the scan. It appears to be a list or a series of entries, possibly related to a historical or scientific record.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선종조공

선종을 돕는 공이라

○ 우리 벗아가리 생각할지 어다 평성에 무수한 죄를 범
 할야 미양맛당이 더욱에 느릴거시오 더 현주 지인
 처조 형사너를 벌형야 더욱에 느리우지 아니시고 도
 로혀너 회승현함을 원형 신으로 이제 이미 현병고를
 주샤 이전만 죄를 약간 보속형여 승현함을 엇게 코쳐
 형시너너 | 엇지가 리 힘써 참아 밧아 써 현주의 큰은
 해로아 지아 나 리 오만일 참아 밧은 즉 현주의 너 | 승
 현형기를 원형시느 뜻에 합형야 승현할 범함을 저 버
 리 지아 날 거시오 오만일 참아 밧지 아니 현즉 현주의 너

를 더욱에 노림을 면하기를 원하시는데 뜻에 합치야
나 더욱 고로움을 벗기 심히 어려우리라 함겨며
참고 견
담으로 논즉 금고로움을 감하고 장려한 당영복을 더
으며 참고 견디지 아니므로 논즉 금고로움을 더
으고
더욱 장려 더욱 영고를 더으니 만일 너고로움을 벗기
를 현하면 엿지 더욱 고로움 벗기는 현치 아니코
이 미
현고로움을 현하며 만일 너고로움 벗기를 사랑
함
만 엿지 현 당즐거움은 사랑치 아니코 금세의
즐거움
을 사랑하노는 금세의 즐거움은 더욱 영고의
문
이 되고 금세의 고로움은 현 당영복의 길
이 되고 노니 오쥬

세상에 계셔 우리를 승련하기를 인도하시매 오직 이
고로 음밟는 길 노행하여 계시니 너 | 고로 음을 참아
밧음으로 딸 오지 아니면 가히 승련하기를 바라라

○ 우리 밧아 살고 죽음에 다 맛당이런 주의 명을 조출치
라 너 | 이 성명을 련 주께 빌어 왔신 죽도로 련 주께 도
라 보냄을 면치 못하리니 네로 브러 씨 음과 이제로 브
러 씨 후에도 라 보내지 아니는 자 | 업느니라 너 | 살
문이에 련 주의 빛을 짐이 오너 | 죽음은 이에 그 빛을
감흠이 니 밧 감흠의 이름과 후더 됨은 다 밧 님 자의 뜻
을 딸 온즉 너 | 이 성명을 도라 보냄의 이름과 후더 됨

이 다련쥬의 명을 딸을 지라련쥬 | 네 성명의 빛을 무
르시매 너 | 감심하야 도라보낸 즉 빛을 쥬 버리느 죄
를 면하고 련쥬의 총의를 엮으리라 응물며 이 성명을
더 덕도라 보냄이 밧비도라 보냄만 못지 못하야 장명
이 단명만 못하니 성명이 더욱 자르면 배죄 더욱 적고
성명이 더욱 길면 배죄 더욱 만흔 거시니 장명이 무심
유익함이 잇스리 오너 | 엮지가 허장명을 보람으로
단명을 갖거 응지 아니 응고 죽기를 느릴 생각으로 이
제 죽기를 즐기지 아니 응노요

○ 또 성시는 스후가 나를 놀배고 저히는 때니 성시에 두

려음이 만흠은 다스 후를 위하야 날원바이라 만일 오
날날죽은즉 다른 두려움이 업서 한번죽음으로 만흠
두려음을 면하니 이제 죽음이엇지아름다운죽음이
아니리오 하물며 이제 죽음으로집에잇서 평안이 죽
음을엇어 능히스 후를 예비하야 고히와 종부의 은혜
를엇으니 이거사가히션종하야 승련흠을 보랄지라
만일오는압희죽으면두리건대 흉히죽거나 급히죽
거나 하야고히와 종부의 은혜를엇지 못하고 몹시 죽
음으로 더욱에떠러질가 하노니 가히이제 죽음으로
큰복을삼아 감심하야 참아 밧아 써련 주의 은혜를우

러러 밧지 아니 하랴

○ 우리 밧아가 히 알 지 어 다 죽 는 괴 한 은 현 주 의 명 하 신
바 이 라 현 주 이 명 하 신 때 가 너 의 죽 는 괴 한 이 됨 은 올
커 니 와 너 이 원 하 는 때 가 너 의 사 는 괴 한 이 됨 은 올 치
아 니 하 니 만 일 현 주 이 너 죽 기 를 이 때 에 명 하 시 면 너
이 살 기 를 원 함 과 아 니 원 함 을 의 론 치 아 니 코 너 이 주
명 을 조 참 과 아 니 조 참 을 구 애 치 아 나 일 명 코 이 때 에
죽 을 지 라 주 명 을 조 참 으 로 능 히 죽 기 를 백 르 게 못 하
고 주 명 을 좃 지 아 님 으 로 능 히 죽 기 를 더 디 게 못 하 거
든 하 므 를 주 명 을 좃 지 아 님 으 로 조 괴 령 혼 을 빠 지 오

고 또 혼 농히 육신도 구쳐 못 혼며 쥬명을 조춤으로 령
혼을 구 혼고 또 혼 조 괴 육신을 빠지 오지 아니 혼니가
히련 쥬의 내 성스 룰 덩 혼 신명을 즐 거 쫓지 아니 라 만
일 죽기에 즐 기 지 아니 커 든 그 죽음을 춤 아 견 디 고 힘
써 믿음을 오롯이 혼야 상히 념 혼야 곧 이 디

○ 지인 지 조 혼 신 오 쥬에 수여 나 중 죄인의 내 육신과 령
혼을 가져 려 쥬 괴 밧 드 러 드 리 는 이 다 나의 살 고 죽 음
과 병 들 고 평 안 흠 과 고 롭 고 즐 거 움 을 다 려 쥬 괴 부 탁
혼 고 려 쥬 괴 구 혼 는 니 명 을 는 리 우 시 디 너 | 원 혼 심
과 곳 치 혼 쇼 셔 나 | 다 른 원 이 업 서 원 혼 는 밧 자 | 오

적쥬의 뜻에 합함이 니이러므로써 오릿흐니 음으로
결단호고명호야 이제로브러써 후로는 후살고 후죽
기롤쥬명을드러조출뎡름이로소이다호라

○ 우리벗아 이때에 힘을다호야련쥬를견고히밧고근
절이브라고드거아 사랑함은 긴급흐일이라우리고
중의그장귀중흐자 | 이거룩흐공긋흐거시업고그
장요긴흐자 | 또흐이공이업슴긋흐거시업스니이
는우리무리평성에 상히맛당이행호고시각에가히
닛지못홀거시어든호물며이때는너 | 급박흐때오
야귀빅계로사오나음을더어너를해호는때라엇지

가히 보지런이 삼가지 아니코게 어룬 믿음으로 너스
리오련 주의 그 장 사랑하시느바는 오직 우리 신망의
삼덕의 정을 발함이 오마귀의 그 장 혼 혼느바 | 또 혼
이 삼덕의 정 못 혼 거시 업스니 못 능히 삼덕의 정을
발 혼느바는 이에 능히 주의 믿음에 결합 하야 마귀를
퇴 혼 거시 오 못 능히 주의 믿음에 결합 하야 마귀를
퇴 혼느바는 이에 능히 련 당만 복을 얻어 기러 디 옥에
빠 지지 아니 하리니 삼가지고 삼가 스스로 날 너를 후
이제 브터 후에 못 신덕을 비 반 함과 비 램을 일 커 나
혔 되 이 비 램과 련 주를 원 망 함과 후 갖가지 주 명에 합

저야난생각과말과형스 | 잇스면다병으로말미암
고후미음이혼미하야발흔바 | 오내본심의원하야
발흠이아나라내미음은다만이런쥬를밋고브라고
스랑흠이니그러므로뜻을결단하고미음을오르티
하야상히념하야런쥬를밋고런쥬를브라고런쥬를
만유우희스랑하리라하라

○
므릇마귀신덕을일논생각을더짐을맛나거든반드
시맛당이용밍흔미음으로물니쳐마귀로더부러서
로론란치말고그어즈러이말흠을브려두어더답지
말고다만맛당이미음에오르티힘써이곳치생각하

되나 | 성교회 밋는 바 모든 곳 출 밋는 니 후 사 나 후 주
으나 기 리 이 믿음 을 변치 아 니 하 리 라 하 고 후 마 귀 공
교 히 무 르 디 성 교회 는 무 슘 껏 출 밋는 노 하 거 든 너 |
또 디 답 지 말 고 다 만 전 구 절 을 가 셔 구 을 너 념 하 디 성
교 | 나 밋는 바 껏 출 밋는 니 라 하 고 후 다 시 무 르 디 너
| 무 슘 껏 출 밋는 노 하 거 든 전 대 로 념 하 디 나 | 성 교
회 밋는 바 모든 곳 출 밋는 노 하 야 빅 번 무 러 도 빅 번 디
답 하 기 를 하 갈 곳 치 하 라

○ 네 트 적 에 하 위 주 교 | 길 히 낫 더 니 중 로 에 하 산 이 잇 고
산 에 서 하 수 트 굽 는 사 름 을 맛 나 주 교 | 그 요 리 에 북 지

못 혼가 두려 곳 무러 곧 은 디 현 주 | 몇 치 계 시 노 디 답
흥 디 다 만 흥 나 히 계 시 나 라 무 르 디 흥 현 주 에 몇 위 계
시 노 디 답 흥 디 세 위 엇 지 능 히 흥 나 히 되 노 노 디 답 흥 디
히 세 위 되 며 세 위 엇 지 능 히 흥 나 히 되 노 노 디 답 흥 디
엇 지 흥 야 그 런 지 모 르 디 다 만 신 부 | 나 를 이 곳 처 마 르 쳤 시
르 치 더 라 무 르 디 임 의 신 부 | 나 를 이 곳 처 마 르 쳤 시
면 너 는 엇 더 라 흥 노 노 디 답 흥 디 현 주 | 다 만 흥 나 히
계 서 고 흥 현 주 에 삼 위 계 설 따 름 이 나 라 박 번 무 러 도
박 번 이 곳 처 디 답 흥 커 늘 주 교 | 숫 굽 는 삭 름 의 신 덕
을 괴 이 히 덕 이 고 나 러 나 갓 더 니 후 에 주 교 | 림 종 에

나 르러 마귀 그 신덕을 배반하는 죄에 빠지 오기를 도
모 하여 삼위 일례도 리를 변박하여 못 거를 전에 주교
의 숫급는 사롬 드려 무롬과 갓치 하여 놀쥬고 마귀
로 여브러 변박함이 극히 위험함을 보이어 아는 고로 파
하고져 하여 곧 이디나 삼위 일례 밋거를 숫급는 사
롬의 밋음과 일반이 로라 박변 무려도 박변 더 답하거
를 혼갈 갓치 한다 마귀 제 능히 항복 받지 못 할 줄을 보
고 붓그림을 이 괴지 못 하여 드라나 나라

○ 바람을 일는 유감을 맛나 거든 곳 생각하 더련쥬의 무
궁하 신인 조 너의 승련함을 지극히 원하시 너 내

개 승련 항 기 는 다 만 너 | 항 고 저 항 고 아 니 키 에 잇 는
지 라 만 일 즐 겨 승련 항 라 항 면 반 드 시 승련 흘 버 람 을
일 치 아 니 항 려 든 항 물 며 련 주 | 너 의 승련 흠 을 스 랑
항 시 기 를 너 | 스 스 로 승련 흠 을 스 랑 항 기 에 셔 무 궁
히 더 항 시 니 엇 지 가 히 버 람 을 일 혀 련 주 | 너 를 승련
흠 을 주 지 아 니 살 가 항 리 오 또 련 주 | 너 의 승련 흠 을
스 랑 치 아 니 시 면 강 생 항 사 슈 난 항 심 이 무 슝 뜻 이 잇
스 러 오 임 의 슈 난 슈 고 항 심 이 다 만 아 너 의 승련 항 기
를 위 항 심 아 니 엇 지 즐 겨 즈 괴 슈 난 항 신 뜻 을 저 버 려
너 를 승련 흠 을 주 치 아 니 시 리 오 이 러 므 로 만 일 너 |

곳이런쥬를비관즉기려승련함을저버리지아니시
리라하라

○헛되이승련함을비라는유감을맛나거든곳생각하
더곳괴의범함하바최심히만코심히중하고아오로헛
꽃면훈선덕과공적이가히닐을거서업는지라만일
곳괴생각과말과행스를김히생각하야규제외최중
철단에더하야보면훈제와훈단도아니범함이업고
아오로훈애도죄에빠치지아님이업는줄을알지니
정히평생의갓가지최악이각각맛당이만고를밧을
지라엇지가히즈괴공을의탁하야승련하려하고디

우에 나 림을 놀배고 의심치 아니라 오 후 있다 감션을
행함이 있스나 불과 지물을 도회함과 일함을 도회함
아니가히 전진짓선이 라닐은 지 못할 거시오 정히 오 후
고 램은 악에 속할 때 림이 로다 이곳치 생각흔 즉 덕
을 행하여 현주를 섬김은 이런 주의 주신바 라나 조
괴의 잇은 바 아 아니 오 후 물며 세상 사 림의 행흔 바 선
덕에 비 록 심히 아 림답고 심히 만 하도 다 본 분에 속 후
고 기 리 능히 본 분 밧괴 나 행치 못 할 거시 너 잇 지 가 히
조 괴 선을 가져 써 가 히 밧을 공을 삼으 리 오 또 성인 된
자 조 괴 공을 밧어 승 현 현이 업서 다 현 주의 인 조 외

진짜의 정진 방법은 의화공의 공헌을 여겨서 거론
물론이긴 하지만 이것을 자하여 또 자아나 할 리요 또한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을성 있는 마음을 다한 후에
물론이긴 하지만 이것을 자하여 또 자아나 할 리요 또한

○ 天啓를 받들어 천주교를 믿는 영혼들은 유익함을 맛나게 하는
주님의 천주교를 믿는 영혼들은 유익함을 맛나게 하는
영혼들이기 위하여 공경하고 그 영혼들이
하느님과의 영연도 그 영혼들이
저녁이 되면 소고 버릇은 사물에서
하느님과의 영연도 그 영혼들이
저녁이 되면 소고 버릇은 사물에서
하느님과의 영연도 그 영혼들이

신 품 생 스

신 품 은 이 오 주 예 수 의 덩 하 신 레 니 씨 사 름 을 생 교 회 의
몹 혼 위 에 세 위 하 여 곱 능 히 본 위 에 속 혼 바 교 중 일 을 행
하 게 하 시 고 또 생 데 생 스 를 일 위 련 주 띠 제 현 하 는 능 과
다 못 사 름 의 죄 를 사 하 는 권 으 로 써 주 시 는 니 라

이 는 다 신 품 의 효 힘 이 라 신 품 이 상 하 칠 품 을 포 함 하
니 므 로 탁 덕 상 품 을 령 하 기 에 니 른 자 야 이 에 생 데 를
일 우 는 능 과 사 름 의 죄 를 사 하 는 권 을 엮 는 니 라 다 만
이 생 스 는 모 든 사 름 의 가 히 령 할 바 이 아 닌 고 로 뵈 이
푸 지 아 니 하 노 라

Handwritten text on the top line.

Handwritten text on the second line.

Handwritten text on the third line.

Handwritten text on the fourth line.

Handwritten text on the fifth line.

Handwritten text on the sixth line.

Handwritten text on the seventh line.

Handwritten text on the eighth line.

Handwritten text on the ninth line.

Handwritten text on the bottom line.

혼비성수

혼비는 이오 주 예수 의 명호 신례 니셔 혼남 조 의 몸으로
혼녀 조 를 비 합 호 고 혼녀 조 의 몸으로 혼남 조 를 비 합 호
야 두 사 례 이 평 성 에 짝 이 되 게 호 시 고 특 별 이 성 총 을 혼
비 호 는 자 의 게 더 어 호 여 곱 부 부 의 친 이 를 일 우 고 식 육
의 유 감 을 막 고 조 식 을 나 코 길 녀 셴 으 로 써 교 혼 호 야 려
당 길 노 인 도 호 게 호 삼 이 니 라

이 는 다 혼 비 성 수 의 호 힘 이 라 닐 온 혼 남 조 | 혼 녀 조
를 비 합 호 다 호 음 은 대 개 혼 지 아 비 와 혼 지 어 미 는 정 도
| 오 그 바 의 비 첩 의 무 리 는 다 오 예 혼 죄 되 는 지 라 혼

지아비와 혼지어미로 된 자오직 등대히나 혼지어미
로만 혼지아비를 배합할즉 혼비정도애어귀여간음
죄를 범함이니 혼지아비로만 혼지어미를 배합하면
엇지또 혼 혼비정도애어귀여간음 죄를 범함이아니
리오

○ 날온평성에 짝이되다 혼은 매개 배합 혼자난 종신도
루가히 푸지 못할지라 만일 결 혼하고 쳐 혼며 종신도
루 짝이 되지를 원치아니 혼고 불과 세상일의 순하고
거스림을 보아 후 풀고아니 풀녀 혼면 엇지 능히 혼비
를 일 후 혼 오 후 종신도 루 짝이되기를 원 혼야 성 혼 혼

고 후에 믿음을 변하고 뜻을 곳쳐 혼인을 떼히 고서로
떠나면 곳 혼비의 리에 크게 거스리고 현주의 명을 범
함이 라 성경에 기록 하였시 디 처 음 현 디 를 내 실 때 에
현 주 | 임 의 만 물 을 조 성 하 시 고 이 에 혼 사 나 회 를 내
시 니 일 혼 은 아 담 이 오 혼 녀 인 을 내 시 니 일 혼 은 아 와
| 라 인 류 의 원 조 를 삼 으 시 고 닐 너 곧 야 디 너 회 부
부 두 사 름 이 혼 가 지 로 혼 몸 이 되 었 다 하 시 고 예 수 의
말 소 에 현 주 의 비 합 하 신 바 를 사 름 이 떼 히 지 말 나 하
시 니 사 름 난 처 음 에 세 계 공 허 하 여 도 현 주 | 또 혼 사
림 이 혼 인 을 변 리 하 야 혼 지 아 비 와 혼 지 어 미 의 정 도

를 범함으로 사름이 총성동여 세계를 총만 케함을 허
치야나 세계서 거늘이 제사름이 세계에 총만 허나도로
허혼인을 변기 함으로 신의를 범치아 낫는다 허며 혼
지아 비로 만 혼지어미를 비합함으로 정도를 범치아
낫는다 함이 크게 그르지아나

● 낫온 부부의 친의를 일우다 함은 대개 현쥬사름의
결혼함을 명하야 세우심은 부부사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고 동심갈력하야 종신도록 부
들고 끼드려 슈고롭고 평안함과 고통고즐거움을 서
로 혼가지로 하야 그나 허병들면 그나 허구원하

고곤심흔즉워로흥고조식이잇거든흔가지로길너
선으로써그르치게코져흥심이니만일서로브려도
라보져야니커나화목지아니흥야서로꾸짖고서로
싸호면엇지죄업스리오그러나지아비는흔집의쥬
인이되니지어미맛당이치아비의올흔명을드러지
라이는일뎡흔의리니가히받고지못할거시니라

○닐온조식을나코기르다흙은대개현쥬이흔비의례
를뎡흥야씨인류를전케흥심이니만일부부이정도
를쓰지아니코비례의음난을형흙이잇스면곳인류
를해흥야흔비의본뜻에어김이오그러나조식나키

를 힘쓰고 선으로써 그릇치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조
식의 몸을 기르기에 급하고 그령 혼을 기르기에 게어
른즉 현주의 본뜻을 알힘이니라 날온 식욕의 유감을
막다 힘은 대개 사름이다 더러 온 세상에 거하고 사욕
을 향하는 육신을 지고 향상마귀의 사욕으로 유감함을
을 밋으니 만일 혼비정례업스면 간음을 방조하지 않는
자니 반드서만 흘거시오 만일 정도의 비필을 잊은즉
가히 정식을 행하지야 간음을 범함을 면하지라 그런고
로므로 부부나 무고히 합방을 아니커나 혼나 혼원하
디 혼나 혼원치 아니면 잊지 신의를 범하지야 서로 사음

에 빠질 위험을 일 위치 아니리오

○ 머릿의 혼 혼는 자와 후 혼인을 주 장 혼는 자와 후 출가
하고 장가 드는 자 | 각각 맛당이 혼비의 엇더함을 보
이 안연 후에 납치 하고 언약 하여 혼스를 명함이 가 혼
지라 만일 납치 하고 언약 하기 전 후에 분명치 아닌 도
리 잇거나 후 성 혼 혼 후에 규구에 합치 아닌 일이 잇거
든 반 드시 맛당이 락 덕으로 더 브러 상의 하여 그 처
의 심 풀기를 구 할 지니 만일 혼비의 요긴 혼 거슬 아치
못 하고 스스로 주 장 하여 마고 행 하면 진 실 노 두 리 건
대 남 녀의 큰 일을 그릇 처 김 혼 함 정에 빠 지 위 종 신 도

독혼을 품고 신후에 영고를 밧을가 하노라

◎성교에잇는 혼비는 어에 칠성수 중응나히라 오주
세위명응샤셔 혼비응는 자의게 성총을 더으시는바
나니 그런고로 모르대 죄잇고 혼비응고 쳐응는 자는
곳성 혼응기림시 응야반드시 맛당이 후고히응거나
후상등 동회를 발혼연후에 야가히 성교 혼비의 성총
을님을 지니 만일 고히 함이 업거나 동회 함이 업스면
다만 성총이 업슬뿐 아니라 도로혀 크게 현쥬꺼득적
하노니라

◎외교자의 혼비도 만일 본성의 법을 거스리지 아니면

실노 혼비되되 또 혼성교 혼비와 달나 혼비성스 업
는지라 그런고로 외교자는 비록 혼비되나 능히 봉교
자의 혼비와 갖치성교 혼비의 신은을 닦지 못할거시
오만일외교자ㅣ성혼후에 부부 두사람이 다 임의
령세하면 그 혼비곳성교의 혼비되느니라

○ 후이 무르디 혼인을 미즘과 동정을 직힘이 어느거시
좁고 귀호요 끝이디 세속은 혼인힘으로 귀함을 삼고
동정직힘으로 천함을 삼으나 다만 리로써 밑임이 아
니 오불과 본성의 욕심으로써 날음이 라 속인의 덕이
족히 동정을 직히지 못호는고로 혼인을 미즘이 귀호

다 말을 빌어 써고 호석 흥는 믿음은 꿈이 고 등정을 직
힘이 천하 다 말을 의탁 흥여 고 육심을 방조 하 흥는 취
를 황계 흥는 지라 3 장 귀 흥보 비는 귀 흥갑 서야 너면
밧고 지 못 흥는 나 미 흥갑 스로 귀 흥보 비를 밧 꿈은 잇
지 아니 흥며 3 장 큰 공은 큰 슈고 1 아니면 일우 지 못
흥는 나 일락으로 큰 공을 일움 이엇지 잇스 리 오므르
혼인을 밧는 자는 반드시 덕이 잇고 로고 흥후에 야 혼
인을 밧는 거시 아니 오도로 혀 본성의 정욕으로 써 향
흥고 비라는 지라 그러므로 세상 사림이 그 몸을 닥금
과 정욕을 이괴는 여부를 조차 후비 필을 구 흥고 후구

치아니 호야 곳즈 괴정욕을 더욱 조차석을 도화하는
자는 더욱 즐거우호고즈 괴정욕을 더욱 이 괴여션을
도화하는 자는 더욱 멀니 떠나느니 엇지 호석을 하는 자
는 덕이 심히 크고 선한 자는 그러치 못함을 말미암으
며 엇지 혼인함은 귀하고 정덕은 천함으로 말미암음
이리오

○ 정을 직회하는 자는 반드시 본성을 이 괴고 본성을 원슈
곳치 보고 사음을 물니치고 사욕을 누르고 녀인을 끈
코음난 혼사름을 멀니호고 세속을 경히 녀이고 사마
를 더덕 혼연 후에야 정덕을 일우는 지라 정을 직회하는

슈고 이 큰 슈고 이 내 고 공이 또 훈크 자 아니 며 정을 직
 회는 공이 지 극히 심훈공이 내 정덕의 귀 흙이 었지 또
 훈심훈지 아 디 라 오성경에 현쥬 이 정적 회는 자 등려
 날너 곧 이 사 터 너 이 나 는 무 른 남 기 라 날 이 지 말 나 나
 이 네 보좌 를 내 성 가 온 디 명 흥 고 네 게 일 흙을 주 어 조
 식 나 훈자 에서 심히 아 름답 게 흥 리 라 흥 시 니 곳련 당
 에 는 정을 직 흰 자 이 훈비 훈자 에서 돕 호 니 정을 직 흰
 자 의 감 흙이 또 훈훈비 훈자 의 감 흙에 서 클 지 나 라
 훈이 곧 이 터 조 식 나 흙으 로 써 귀 흙을 삼 은 죽 었 지 또
 훈훈인 흙으 로 써 귀 흙을 삼 지 아 니 리 오 디 답 흥 터 조

석나흠으로 귀흠을 삼는다. 혼즉즉식을 만히 나흠스
록더욱 귀흠저니 도슈와 미 혼버레도 전류흠이 사름
에셔 심히 만 혼즉 그 귀흠이 또 혼사름에셔 나오라이
그름이 심히 크도 다 혼비로써 즉식을 나하사름의 수
를 더으고 정덕으로써 정도의 성덕을 힘써 성현의 수
를 더으며 혼비는 세상을 총만케 하고 정덕은 현당을
총만케 하니 그 귀흠이 어나거시 크리오 혼인 하는 일
은 이에 육신의 욕심을 순히 흠이니 지우선악을 의론
치 말고 다 이일이 잇슬 뿐 아니라 도슈와 미 혼버레도
다 잇고 정덕은 이령신의 일이 라 세상 성현만 겨유 잇

을뿐아니라 또 후련당 신성이 더욱이 덕이 있스나 이
에 사람이 후인함으로 논도 유에 갓 잡고 정덕으로 논
신성에 갓가오니 세상 사람이 비록 그 장미련 후차
나 뒤 사람이 증승에 갓가 온일 노 귀함을 삼고 사람이
신성에 갓가 온일 노 귀함을 삼지 아니 후리오 성경에
골으샤 더련당에 후인이 업느니 이에 사람이 승련 후
후는 결정 후기련 신 곳다 후시니 정직히 논자 비록
진세에 잇스나 그 령산이 조출 후야 육육의 때에 무드
지 아니 후니 임의 세상에 나가련 상 사람이 됨과 엇지
다 르리오

